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14호 【루계 제24792호】 주체104(2015)년 1월 14일 (수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당과 조국에 삼가 드리는 과학자들의 애국충정의 결정체

국가과학원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지도이후 지난 1년간 국가적의의를 가지는 90건의 과학기술성과 창조, 수많은 연구성과 확대도입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주체103(2014)년 1월 14일 국가과학원에 대한 력사적인 현지지도를 진행하신 때로부터 1년이 되였다.

지난 1년은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이 땅우에 기어이 사회주의강성국가를 일떠세우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대한 과학중시사상이 빛나는 현실로 더 활짝 펼쳐진 뜻깊은 날과 달들이였으며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의 심장속에 조선로동당기발이 휘날리는 원수님의 품속에서만 과학연구사업을 하겠다는 신념이 더욱 깊이 간직된 명실공히 과학의 해, 과학자, 기술자들의 긍지높고 영광스러운 한해였다.

온 한해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끊임없이 안겨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하늘같은 사랑과 믿음은 국가과학원 과학자들과 일군들에게 천백배의 힘과 열정을 안겨주었으며 그들의 정신력을 최대로 폭발시켜주었다.

국가과학원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강성국가건설구상을 높은 과학연구성과로 받들어나가기 위한 줄기찬 투쟁을 벌려 지난 1년동안에 나라의 과학기술과 경제발전,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90건의 국가적의의를 가지는 과학기술성과들을 창조하였으며 수많은 연구성과들을 여러 부문에 확대도입하였다. 이 성과는 우리 과학자들에게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시며 과학기술중시의 위대한 력사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며 원수님의 현지말씀관철에 떨쳐나선 국가과학원 전체 과학자들과 일군들의 결사적인 투쟁의 고귀한 열매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나는 국가과학원의 모든 과학자들과 일군들이 높은 리상과 꿈을 안고 눈부신 과학연구성과로 부강조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하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국가과학원에서는 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전례없이 앙양된 전체 과학자들과 일군들의 혁명적열의에 맞게 경애하는 원수님의 2014년 신년사와 현지말씀에서 제시된 강령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100여건의 중심전투목표를 세우고 힘찬 투쟁을 벌리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일터에 모시고 귀중한 가르치심을 받아안은 111호제작소의 과학자들과 일군들은 원수님의 현지말씀대로 10여대의 성능높은 공기정화소독기를 한달도 못되는 기간에 제작완성하여 조선인민군 11월2일공장에 보내줌으로써 공장을 찾으신 원수님께 커다란 기쁨을 드리였다. 그후 국제경기규칙에 맞게 개발한 여러 종목의 체육경기심판기들과 현대적인 제품종합검측설비, 성능높은 원격질소가스농도측정기, 엽록소측정계기의 도입 등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말씀관철을 위한 모든 대상과제들을 단 석달만에 결속하는 훌륭한 모범을 창조하였다.

국가과학원의 모든 분원, 연구소들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을 드리는 가치있는 과학연구성과를 내놓기 위한 경쟁열풍이 세차게 휘몰아쳤다.

동력기계연구소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말씀을 높이 받들고 국가과학원에 모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과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청진시를 비롯한 전국의 10여개 단위들에 모신 대원수님들의 동상들에 대한 조명에 레드등조명체계를 최상의 수준에서 도입하였다. 그리하여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을 언제나 밝고 정중히 모시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수학연구소와 리과대학, 함흥분원 혁명사적보존연구소에서는 금수산태양궁전을 주체의 최고성지로 더 잘 꾸리는데 이바지하는 여러건의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해결하였다.

열렬한 충정을 안고 과학자들이 이룩한 훌륭한 연구성과들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불멸의 혁명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이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인민들의 먹는 문제해결에 이바지하는 의의있는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지난해 봄철 우리 나라에는 100년래의 왕가물이 들어 대동강물을 리용하여 농사를 짓던 서해안의 넓은 지역에서 모내기를 할수 없는 긴급한 정황이 조성되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자면 바다물을 끌어들여 대동강수위를 높이는 길밖에 없었다.

수리해양과학분원 수리공학연구소의 과학자들은 서해갑문에 나가 긴장한 탐구전을 벌려 많은 량의 바다물을 민물과 섞이지 않게 끌어들이는데 성공함으로써 대동강수위를 40㎝정도 높이였다. 그리하여 서해안지구의 수만정보에 달하는 농경지들에 필요한 관개용수를 원만히 해결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이 기술은 지난해말 수도시민들의 먹는물문제를 푸는데도 성과적으로 도입되여 큰 은을 나타냈다.

중앙버섯연구소의 과학자들은 금강약돌을 리용하여 영양효과가 쌀겨와 맞먹으면서도 멸균효과와 잡균방어력이 높은 버섯기질영양첨가제 《금강1》호를 개발하였으며 여러 종류의 알곡짚 등을 버섯재배기질로 쓸수 있는 방법연구에 성공하였다. 그리하여 온 나라에 버섯재배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킬수 있는 과학기술적담보를 마련하였다.

레이자연구소의 레이자종자처리기, 미생물학연구소의 티오균비료와 은정복합균에 의한 발효먹이생산기술, 식물학연구소의 식물성농약과 식물성종자활성제를 비롯하여 과학자들의 피타는 사색과 헌신적인 노력이 깃든 여러가지 종류의 지적제품들이 지난해에도 연 80여만정보의 농경지와 세포지구축산키지건설장에 적극적으로 도입되여 농업생산을 늘이는데 이바지하였다.

성과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교시를 받들고 지난 3년간 120여만그루의 키낮은사과나무접그루조직배양모를 생산하여 20여개의 과수농장들에 보내주고 종축장들에 첨단인공수정기술을 도입한 생물공학분원을 비롯한 여러 연구단위들에서도 이룩되였다.

지구환경정보연구소와 수산과학분원, 나노재료연구소에서는 어선용위성수신기, 어장탐색지원체계와 전방향어군탐지기, 바다물소독기, 대형살균수제조기를 개발도입함으로써 어장예보와 물고기잡이 및 보관의 과학화수준을 높이는데 이바지하였다.

우리 과학자들의 피타는 사색과 탐구, 불같은 열정이 깃든 연구성과들은 지난해의 불리한 기상기후조건에서도 농업생산을 안전하게 담보하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밑에 황금해의 새 력사를 창조하며 사회주의바다향기가 온 나라에 차넘치게 하기 위한 전인민적투쟁의 밑거름이 되여주었다.

나라의 긴장한 에네르기문제를 풀기 위한 투쟁도 힘있게 벌어졌다.

석탄공업부문에서는 능률높은 끝분리역기폭장약에 의한 속빼기발파방법과 관성식적재운반설비에 의한 완경사중박층채탄방법, 갱내 60m이상의 전방에 대한 탐사를 할수 있는 실시간탄성파—전기종합CT탐사기술, 야외저탄장에서의 석탄먼지잡이기술, 3차원지하정보체계, 무연탄밭들에 대한 수자지질도, 갱내 주요설비들의 실시간감시체계, 단거리무선지체발파기 등을 확대도입하기 위한 석탄과학분원과 지질학연구소, 환경공학연구소를 비롯한 여러 단위 과학자들의 투쟁이 힘있게 벌어져 석탄증산에 이바지하고 유망한 새 무연탄밭후보지들이 마련되였다.

리과대학에서 개발한 석탄연소첨가제가 주민용땔감문제해결을 위해서뿐아니라 단천마그네샤공장과 구장세멘트공장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단위의 공업로들에 확대도입되였다. 그리하여 공업부문에서도 많은 석탄을 절약하면서도 생산품의 질을 높일수 있는 좋은 전망이 열리였다.

화력 및 수력발전소들에 수자식려자조종체계, 수자식조속기조종체계, 대용량저수지운영프로그람 등을 도입하기 위한 전기연구소, 수리공학연구소를 비롯한 여러 단위 과학자들의 투쟁도 현지에서 힘있게 벌어져 전력증산을 위하여 떨쳐나선 로동계급을 크게 고무하였다.

국가과학원에서는 지난해에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CNC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투쟁에서 뚜렷한 실적을 내였다.

수직식산소열법용광로에 의한 용융환원제철기술이 확립되였다.

흑색금속연구소에서 개발한 이 제철기술은 콕스를 전혀 쓰지 않고 우리 나라의 무연탄과 산소를 리용하여 여러가지 종류의 철광석이나 지금까지 쓰지 못하고있던 품위가 낮은 철광석으로부터 련속식으로 질좋은 선철을 생산할수 있는 실리가 큰 우리 식의 새로운 철생산방법이다.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주체철을 하여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교시를 심장에 새기고 우리 과학자들이 내각과 순천화학련합기업소, 국가과학원 책임일군들과 현장로동계급의 적극적인 지지방조밑에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뚫고나가며 기어이 확립한 새로운 주체철생산방법에 의하여 대원수님들께서 한평생 념원하시였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바라시는 우리 나라 연료에 의거하는 주체적인 무색야금공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끌어올릴수 있는 또 하나의 과학기술적담보가 마련되였다.

김책제철련합기업소 열간압연공정의 현대화, CNC화가 실현되였다.

자동화연구소의 과학자들은 지난해에 열간압연공정에 우리 식의 공정감시 및 자동조종체계를 구축하고 공정전반에 대한 생산지휘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투쟁을 성과적으로 결속하였으며 조종기계연구소의 과학자들은 수직식련속조피공정의 CNC화를 완성하였다. 그리하여 김책제철련합기업소의 현대화, CNC화를 우리 과학자들에게 맡겨주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그처럼 크나큰 심혈과 로고를 바쳐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교시를 기어이 관철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철도과학분원 철도건설연구소에서는 철도성과의 긴밀한 창조적협조밑에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전구간이음목없는 철길부설을 과학기술적으로 담보하였다. 곡선구간이 많고 철길다리가 여러개나 될뿐아니라 각종 경사구간이 70‰이상이나 되는 염주—내중사이의 전구간에 대한 이음목없는 철길부설공사가 완공됨으로써 철길개명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추동할수 있는 또 하나의 과학기술적토대가 마련되였다.

우리 나라 식료공장의 본보기, 표준으로 전변된 조선인민군 2월20일공장을 비롯하여 현대적으로 꾸려진 여러 식료공장들에도 파자이적로보트 등 80여종에 수백대의 설비와 자동화기구, 장치들을 제작도입하고 제품의 질제고와 정상운영을 위한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한 조종기계연구소를 비롯한 국가과학원 과학자들과 일군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깃들어있다.

중유를 전혀 쓰지 않는 산소—미분탄착화기술의 개발, 강계포도술공장의 전반생산공정에 대한 자동조종체계와 통합지휘체계확립, 천지윤활유공장에 윤활유포장로보트도입, 순천화학련합기업소에서 초산에틸생산실수률제고와 고압대출력주파수변환기 조종장치의 개조 그리고 비접촉식레이자3차원형태측정설비와 주사식공기플라즈마열처리장치의 도입성과를 비롯하여 열공학연구소, 공업정보연구소, 기계공학연구소 등 여러 단위들에서 이룩한 가치있는 많은 연구성과들은 인민경제 여러 부문, 여러 단위들의 기술개건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설비, 자재의 국산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훌륭한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경공업과학분원의 과학자들은 자기 땅에 발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는 높은 민족적자존심과 배짱을 가지고 여러 단위 과학자들과 일군들과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면서 헌신적으로 연구사업을 벌림으로써 수입에 의존하던 주요한 국방체육기재를 완전히 국산화하도록 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리하여 우리 체육인들이 국제경기무대에서 훌륭한 성과를 거두고 조선사람의 슬기와 지혜와 재능을 떨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기계공학연구소에서는 현장로동계급과 합심하여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콤퓨터조종체계를 갖춘 세계선진수준의 6MN수평판압출프레스를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로 제작도입하였다. 그리고 인민경제적수요가 높은 각종 규격의 수지—흑연복합피스톤고리의 국산화를 완전히 실현하여 여러 단위들의 생산정상화에 기여하였다.

우리 과학자들이 설비, 자재의 국산화에서 이룩한 귀중한 성과는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우리의것을 귀중히 여기고 빛내여나가는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우리의 힘과 기술, 자원에 의거하여 모든것을 우리 식으로 창조하고 발전시켜나갈때 그 어떤 첨단기술도 능히 우리의것으로 만들수 있다는것을 실천으로 보여주었다.

모든 분야를 과학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이룩된 성과도 많다.

정보과학기술연구소의 과학자들은 항공운수가 발전되였다고 하는 서방나라의 독점물처럼 되여있는 최신비행기의 전자장치들에 대한 종합검사지원체계를 단 몇달동안에 개발하여 민용항공총국에 도입함으로써 국제항로비행을 성과적으로 보장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안겨주신 높은 민족적자존심과 세계를 굽어보는 야심만만한 담력과 배짱으로 우리의 청년과학자들이 이룩한 이 성과는 적들의 그 어떤 악랄한 제재책동도 젊음으로 약동하며 최첨단을 돌파해나가는 선군조선의 전진을 막을수 없다는 철리를 뚜렷이 실증해주었다.

용접연구소와 111호제작소에서는 평양국제비행장 항공역사건설과 활주로포장에서 중요하게 제기되고있던 과학기술적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였으며 여러 연구소들에서는 여러 종목의 체육경기심판기들과 판형힘측정장치, 호흡량측정장치, 피로회복제 등 체육부문에서 요구되는 가치있는 과학연구성과를 내놓음으로써 지난해에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한 여러 국제경기무대들에서 우리의 공화국기를 높이 올리고 당의 령도따라 체육강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조국의 기상을 힘있게 떨치는데 이바지하였다.

지질학연구소에서는 도시경영성과의 협동작전으로 지하수탐사에 2.16과학기술상을 받은 지하CT탐사기술을 도입하여 물이 없다고 하던 동해의 섬에서 많은 량의 물원천을 찾아냄으로써 로동당시대의 새 전설을 창조한것을 비롯하여 동서해의 여러 섬들과 미림승마구락부 등 수많은 대상들에서 제기되는 지하수탐사를 성과적으로 보장하였다. 자연에네르기연구소를 비롯한 여러 연구소들에서는 평양국제축구학교와 연풍과학자휴양소를 비롯한 많은 대상들의 지열난방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과정을 통하여 지열난방기술을 우리의 기술로 확고히 틀어쥐였다.

칠보산지구를 세계생물권보호구로 등록하기 위한 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한것도 지난해 국가과학원에서 이룩한 훌륭한 성과이다.

생물다양성연구소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이 뜨겁게 깃들어있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깊이 관심하시는 칠보산지구의 독특하고 풍부한 생물다양성을 해명하여 우리 나라에서 네번째로 세계생물권보호구로 등록하였다. 그리하여 우리 당 자연보호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힘있게 과시하는데 이바지하였으며 조선의 명산 칠보산을 세계가 알게 하고 우리 인민들의 가슴마다에 아름다운 조국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더욱 굳게 안겨줄수 있게 하였다.

지난 1년간 국가과학원에서 이룩된 국가과학기술성과는 그 전해에 비하여 무려 4배나 된다. 현실에서 큰 은을 내고있는 10여건의 성과들이 국가과학기술성과도입증을 받았으며 발명증서신청건수는 수백건에 달한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하늘같은 사랑과 믿음에 보답하기 위한 보람찬 탐구의 나날에 많은 과학자들과 일군들이 원수님께 큰 기쁨을 드리고 은정어린 감사를 받아안았으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표창장과 인민과학자, 공훈과학자칭호를 수여받고 높은 국가수훈의 영예를 지니였다. 100여명이 원사, 교수, 박사, 부교수로 된것을 비롯하여 수백명이 새로 학위학직을 수여받았다.

국가과학원에서 지난 1년동안에 이룩된 이 귀중한 성과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하라고 하신대로만 하고 당과 조국의 사랑과 믿음에 기어이 보답하겠다는 결사관철의 정신력이 폭발된다면 그 어떤 첨단의 요새도 점령할수 있고 기적을 창조할수 있다는 진리를 다시한번 확증하였다.

또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밑에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우리 주체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얼마든지 만난을 헤치고 경제강국건설의 활로를 열어나갈수 있으며 인민의 모든 꿈이 꽃펴나는 사회주의강성국가를 일떠세울수 있다는것을 실천으로 뚜렷이 보여주었다.

올해 총공격전의 승리를 앞당길수 있는 튼튼한 과학기술적담보와 귀중한 경험을 마련한 과학기술성과들은 새해의 진군길에 떨쳐나선 우리 인민들에게 크나큰 신심과 락관을 안겨주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신년사에서 과학기술의 힘으로 모든 부문을 빨리 발전시키고 인민의 락원을 일떠세우자는것이 우리 당의 결심이고 의지이라고 하시면서 과학연구부문에서 최첨단돌파전을 힘있게 벌려 경제발전과 국방력강화,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가치있는 연구성과들을 많이 내놓아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력사적인 현지지도 1돐을 맞이하는 이 시각 국가과학원의 전체 과학자들과 일군들은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여 조국해방 일흔돐과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보다 높은 과학연구성과로 사회주의경제강국, 문명국건설에 이바지할 불타는 열의에 넘쳐있다.

본사기자 려명희

집단적경쟁열풍을 더욱 세차게

중앙동물원 2단계개건공사 적극 추진

중앙동물원 2단계개건공사에 참가한 일군들과 건설자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크나큰 격동속에 받아안고 새해 첫 한주일동안에 높은 공사실적을 기록하였다.

건설지휘부에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지난 10일현재 건설장적으로 규모가 큰 자연박물관건물기초형성을 위한 1만 5천여㎥에 달하는 굴착공사가 성과적으로 추진되였다. 대외건설지도국아래 여러 단위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백수십동의 가설건물공사를 끝내는 자랑을 떨치였다.

조국해방과 당창건 일흔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 정초에 수도건설자들이 이룩한 이 성과는 중요건설대상들을 훌륭히 완공하여 10월의 대축전장을 빛나게 장식할데 대한 당의 호소에 심장으로 화답해나선 일군들과 건설자들의 애국충정이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건설부문에서 조선속도창조의 열풍을 고조시켜 발전소와 공장, 교육문화시설과 살림집들을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들로 일떠세워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선군령도의 길을 이어가시는 바쁘신 속에서도 지난해말에 중앙동물원 2단계개건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였다.

지난해에 이어 계속되는 중앙동물원의 2단계개건공사는 1단계공사때보다 2배나 되는 작업량을 수행해야 하는 아름찬 건설대상이다. 자연박물관과 본관, 철갑상어못과 조류관을 비롯한 규모가 큰 건설대상들과 문화회관을 비롯하여 수십개 대상들의 연건축면적은 13만 5천여㎡에 달한다.

건설지휘부에서는 시공대상이 많은 현실적조건에 맞게 건설의 선후차를 바로 정하고 전반적인 공사계획을 대상별, 공정별, 날자별로 면밀히 작성하는 등 새해전투작전을 빈틈없이 세웠다. 시공단위별건설대상분담계획과 첫달전투목표도 뚜렷이 세워졌다.

일군들은 모든 공사계획을 주도세밀하게 세운데 기초하여 첫 전투목표로 정해진 자연박물관건물기초공사와 가설건물공사를 빠른 속도로 결속하기 위한 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었다.

공사에 참가한 대외건설지도국과 아래단위 일군들과 건설자들이 잡도리를 단단히 하고 첫 전투에서 눈부신 성과를 이룩하였다.

지도국의 일군들은 중기계들과 륜전기재들의 가동률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할수 있게 대중의 열의를 적극 불러일으키는 한편 연유와 통나무를 비롯한 공사용물자를 시공에 확고히 앞세워 보장하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었다.

올해의 첫 건설대상으로 정해진 자연박물관건물기초공사장에서 새로운 조선속도창조의 열풍이 세차게 휘몰아쳤다.

공사시작에 앞서 진행된 측량작업에 이어 기초굴착전투는 낮과 밤이 따로 없이 힘차게 벌어졌다. 현장주변에 배치된 방송선전차들에서 울려퍼진 박력있는 노래소리는 건설자들의 심장을 뜨겁게 울려주며 그들을 새로운 혁신창조에로 힘있게 추동하였다.

굴착공사를 맡은 대외건설지도국아래 중기계사업소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이 비상한 공격정신을 발휘하였다. 유압식굴착기운전공들은 공사성과가 자신들이 맡은 건설기계의 높은 가동률에 달려있다는것을 명심하고 교대시간을 미루어가며 기초파기에서 련일 혁신의 동음을 높이 울리였다. 공사에 참가한 중량급화물자동차운전사들도 전시수송길을 달리는 심정으로 토량운반실적을 첫날전투실적에 비하여 매일 3배이상 기록하는 혁신을 창조하였다.

이들의 혁명적열의속에 날마다 수천㎥에 달하는 기초파기와 토량운반전투가 힘있게 벌어진 결과 한주일동안에 1만 5천여㎥의 굴착공사실적이 기록되는 성과가 이룩되였다.

중기계운전공들과 자동차운전사들은 철갑상어못을 형성하기 위한 공사과정에도 첫 전투의 하루동안에 1500㎥에 달하는 기초파기와 토량처리를 단숨에 해제껴 승리의 신심드높이 전진하는 선군시대 건설자의 용맹을 남김없이 떨치였다.

한편 기초굴착공사가 한창인 나날에 대외건설지도국아래 여러 시공단위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낡은 건물철거공사와 백수십동의 가설건물공사도 동시에 결속하는 자랑을 떨치였다.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발휘하며 새로운 조선속도창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는 일군들과 건설자들의 앙양된 열의속에 공사장의 숨결은 시간과 날이 갈수록 끊임없이 고조되고있다.

본사기자 지원철

사회주의농촌을 힘있게 지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산과 축산, 수산을 3대축으로 하여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고 식생활수준을 한단계 높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황해남도와 함경북도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새해에 들어와 집단적경쟁열풍을 일으키며 질좋은 거름을 마련하여 협동농장들에 보내주고있다.

황해남도에서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황해남도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수많은 영농물자를 성의껏 마련하여 농촌에 보내준데 이어 새해에 들어와 12일현재 10여만t의 거름을 포전에 실어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에서는 농업전선을 힘있게 지원하는것이 당이 제시한 올해 알곡생산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는것을 대중속에 깊이 해설선전하면서 그 수행에로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적극 불러일으키고있다. 도급, 시급기관, 기업소들이 집중되여있는 해주시가 새해 첫 전투에서부터 거름생산과 실어내기로 법석 끓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무한히 격동된 해주시의 일군들과 로동자, 사무원들, 가두인민반원들은 마을과 일터, 집집마다에 마련해놓았던 질좋은 거름들을 각종 운반수단들에 싣고 협동벌로 나갔다. 시의 기동예술선동대와 녀맹기동예술선동대의 힘있는 경제선동이 벌어지는 속에 도당위원회와 도인민위원회, 도농촌경리위원회를 비롯한 도급, 시급기관의 일군들과 공장, 기업소의 근로자들, 가두인민반원들이 수천t의 거름을 협동벌에 실어냈다.

첫 전투에 진입한 연안군과 안악, 은천, 태탄, 재령, 강령군을 비롯한 도안의 군들에서도 농촌을 힘있게 지원하였다.

특히 안악군 일군들은 새해 첫 전투부터 지력을 높이기 위한 조직사업을 통이 크게 진행하여 며칠동안에만도 많은 거름을 포전들에 실어냈다.

도의 일군들은 들끓는 협동벌들을 말고나가 지력을 높이기 위한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어 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있다.

특파기자

함경북도에서

함경북도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질좋은 거름을 많이 마련하여 협동농장들에 보내주고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의 시, 군당위원회들과 근로단체조직들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과업을 대중속에 깊이 해설해주면서 그들이 질좋은 거름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에 적극 떨쳐나서도록 하였다.

가정에서 생산한 질좋은 거름을 싣고나온 도당위원회, 도인민위원회, 도농촌경리위원회, 각 련합기업소의 책임일군들의 모범을 따라 도급기관들과 련합기업소들의 일군들은 자기들이 생산한 거름을 여러가지 운반수단을 리용하여 협동농장들에 실어다주었다.

이미 마련된 자립경제의 토대와 온갖 잠재력을 최대로 발동하여 조국해방과 당창건 일흔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를 혁명적대경사의 해로 빛내일 열의에 넘쳐 한결같이 떨쳐나선 이들의 투쟁은 광범한 대중을 힘있게 고무추동하였다.

청진시의 기관, 기업소, 공장의 일군들과 근로자들, 동, 인민반의 주민들도 거름생산을 적극 다그치고있다.

김책시와 길주군, 회령시, 온성군, 경원군, 화대군, 어랑군을 비롯한 도의 시, 군일군들과 근로자들, 인민반원들이 많은 거름을 농촌에 실어다준데 이어 기세를 늦추지 않고 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있다.

도적으로 지난 5일 하루동안에만도 수백대의 자동차, 뜨락또르와 각종 운반수단이 동원되여 수만t의 질좋은 거름을 사회주의협동벌에 실어다주었다.

특파기자 리은남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 평양양말공장에서 — 본사기자 김광혁 찍음

우리 당의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치로 굳건한 일심단결

인민대중제일주의의 빛나는 력사를 펼쳐주시여

이 나라의 천만아들딸들 누구나가 소중히 간직하고있었다.

우리모두의 운명이시고 미래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 설인사를 제일먼저 드리고싶은 간절한 소원을.

그런데 모두가 바라던 그 소원을 우리 아이들이 먼저 꿈같이 이루게 될줄 누가 알았으랴.

조국해방 일흔돐과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 가셔야 할 곳도 많으셨지만 첫 현지지도의 거룩한 자욱을 평양육아원, 애육원에 새기시고 원아들의 밝은 미래를 따뜻이 축복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지금도 우리의 귀전에 쟁쟁히 울려온다.

잊지 못할 력사의 그날 귀여운 아이들을 사랑의 한품에 안아주시며 지난해 10월 완공된 평양육아원, 애육원을 돌아보면서 설날에 오겠다고 약속하였는데 아이들과 한 약속을 꼭 지키고싶어 신년사를 마치는 길로 찾아왔다고 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 말씀이.

바로 여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니신 인민대중제일주의의 숭고한 뜻이 얼마나 뜨겁게 빛발치고있는것인가.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령도자도 많다.

하지만 이 세상 그 어느 나라에 우리 원수님처럼 평범한 로동자로부터 애육원의 철부지어린이들에 이르기까지 인민들과 한 약속이라면 그것을 곧 법으로 여기시며 어김없이 지켜주시는 그런 령도자가 과연 있어본적 있었던가.

한방울의 물에 온 우주가 비끼듯이 평양육아원, 애육원에 새겨진 사랑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니신 인민대중제일주의의 숭고한 뜻이 얼마나 열렬한것인가를 절감할수 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인민존중의 숭고한 뜻을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기에 올해신년사에서 우리 당사업전반을 인민대중제일주의로 일관시킬데 대하여 그리도 뜨겁게 강조하신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어머니당의 본성에 맞게 당사업전반을 인민대중제일주의로 일관시켜 전당에 인민을 존중하고 인민을 사랑하며 인민에게 의거하는 기풍이 차넘치게 하고 당사업의 주되는 힘이 인민생활향상에 돌려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인민대중제일주의!

돌이켜보면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이 땅에는 얼마나 가슴뜨거운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자랑찬 력사가 장엄히 흘러왔던가.

지금으로부터 두해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4차 세포비서대회에서 하신 말씀이 오늘도 이 나라 천만군민의 심장을 쿵쿵 울린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제일주의이며 인민을 하늘처럼 숭배하고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는 사람이 바로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입니다.

우리 원수님이 아니시라면 과연 그 누가 **김일성-김정일**주의는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제일주의라는 그렇듯 천금같은 정의를 내릴수 있으랴.

인민은 선생이고 인민보다 더 귀중한 존재는 없다는 숭고한 뜻을 안으시고 뙤약볕이 내리쪼이는 한낮에도, 별들이 총총한 깊은 밤에도, 삼라만상이 아직은 조을고있는 이른새벽에도 인민사랑의 현지지도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그 머나먼 길에 새겨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의 세계를 우리 어찌 다 헤아릴수 있으랴.

언제인가 일군들이 경애하는 원수님께 문수물놀이장건설과 관련한 형성안을 보고드리였을 때이다.

일군들은 형성안을 올리면서 물놀이장에 설치할 물미끄럼대가 그만하면 세계적수준에서 작성되였다고 자부하고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이런 생각은 오래가지 못하였다.

문수물놀이장형성안을 주의깊게 보아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에게 문수물놀이장에 설치할 물미끄럼대수가 적다고, 몇개 더 마련하여 설치해주어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물미끄럼대를 더 설치해주되 일반적인것이 아니라 더 아찔하고 난도가 높은것으로 설치해주자고, 그러면 새것에 민감한 우리 청년들이 좋아할것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며칠후 물미끄럼대들을 더 추가한 형성안을 다시 보아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매우 만족해하시면서 이제 문수물놀이장이 건설되면 우리 인민들이 대단히 좋아할것이라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인민을 제일 귀중히 여기시며 그들에게 무엇을 하나 마련해주어도 세계최상의것을 안겨주시기 위해 그토록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세심한 보살피심속에 문수물놀이장에는 현대적인 물미끄럼대들이 설치되게 되였다.

언제인가 황해북도당위원회에서 육아원, 애육원, 학원, 양로원들에 보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의 선물을 전달한 정형과 아이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원수님께 정중히 보고올리였을 때의 일은 또 얼마나 우리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여주는것인가.

그때 일군들이 올린 문건을 받아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도당책임일군에게 한결 마음이 놓인다고, 도당위원회가 항상 관심을 두고 육아원, 애육원, 학원, 양로원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수시로 료해하면서 책임적으로 풀어주도록 하라고, 이제는 춥다, 춥다고들 하는 겨울이라고, 아이들과 늙은이들의 건강을 잘 돌봐주고 특히 아이들을 부모잃은 설음을 모르게 밝게 키워야 하겠다고, 이것은 도당책임비서와 도안의 시, 군당책임비서동무들에게 자신께서 직접 주는 과업이라고 은정깊은 친필을 보내주시였다.

이것은 인민에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열렬한 사랑을 전하는 일화들중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새집들이한 평범한 근로자들의 가정을 찾으시여 사랑의 축배도 부어주시고 인민들이 리용할 유원지의 의자모양까지도 몸소 그림으로 그려주시였으며 아이들을 위한 현대적인 의료봉사기지를 최상의 수준에서 완성하기 위하여 비내리는 건설장의 진창길을 앞장에서 걸으신 그 하많은 사연을 이야기하자면 끝이 없다.

정녕 인민이 누리게 될 사회주의만복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의 열정과 헌신의 바탕에는 이렇듯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시는 인민대중제일주의의 숭고한 뜻이 뜨겁게 깔려있다.

오늘 전당이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모든 일군들이 인민들의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며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고있는 자랑찬 현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니신 인민중시, 인민존중의 사상이 낳은 빛나는 결실이다.

기업소종업원들을 위한 후방사업을 혁신하기 위해 아글타글 노력하여 커다란 성과를 이룩한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 당책임일군의 사업경험, 뜻밖의 사고로 얼굴에 심한 화상을 입고 고통을 겪던 대관군의 한 로동자처녀를 위해 8년세월 정성다해 치료하여 끝끝내 얼굴을 찾아준 조선적십자종합병원 의사 림현단동무와 그 처녀가 일하는 공장의 초급당비서 리춘일동무가 발휘한 아름다운 소행은 우리 당사업전반이 인민대중제일주의로 일관될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가 얼마나 현명하고 정당한것인가를 뚜렷이 립증해주고있다.

어디 그뿐인가.

선군시대 기념비적건축물로 훌륭히 일떠선 위성과학자주택지구,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연풍과학자휴양소를 비롯하여 인민의 꿈과 리상을 현실로 꽃피우는데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는 그 모든 창조물들도 바로 태양의 열과 빛에도 비기지 못할 우리 원수님의 인민대중제일주의의 숭고한 사랑과 정이 낳은 고귀한 결정체이다.

하기에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은 우리 운명 우리 행복 원수님께 달려있기에 아침저녁 소원은 하나 원수님의 안녕입니다라는 흠모의 노래를 절절히 부르면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상과 령도를 언제나 충직하게 받들어나갈 불타는 맹세를 다지고 또 다지는것이다.

지난 1월 1일 평양육아원, 애육원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말씀하시였다.

우리가 혁명을 하는 이 땅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소리는 더 높이, 더 힘차게 울릴것이다!

그렇다.

인민대중제일주의의 숭고한 뜻을 이 땅에 활짝 꽃피워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기에 세계가 우러러보는 백두산대국에서 사회주의만복을 마음껏 누리려는 우리 인민의 꿈과 리상은 더욱 활짝 꽃펴날것이며 이 나라 천만군민이 심장으로 부르는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소리는 이 세상 끝까지 더 높이 울려갈것이다.

본사기자 정순학

하늘처럼 여겨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을 모시는것처럼 우리 인민을 받들고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신년사를 심장마다에 새겨안은 우리 천만군민의 가슴가슴은 솟구치는 격정으로 끓어번지고있다.

전당에 인민을 존중하는 기풍이 차넘치게 하라!

이것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모시는 것처럼 우리 인민을 하늘처럼 받들고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절세위인의 크나큰 심장속에 간직된 가장 열렬하고 숭고한 뜻이다.

로선과 정책을 하나 작성하시여도, 기념비적창조물을 하나 일떠세우시여도 인민들이 좋아하겠는가, 인민들이 뭐라고 하겠는가부터 먼저 생각하시던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그 뜻으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 어디를 찾으시여서도, 그 누구를 만나시여서도 언제나 인민존중의 물으심, 인민사랑의 일화를 남기시였다.

주체101(2012)년 4월 어느날이였다.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갈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면서 이렇게 강조하시였다.

우리는 인민을 끝없이 존중하고 인민의 리익을 절대시하며 인민들을 참다운 어머니심정으로 보살펴주어야 합니다. …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인민을 하늘같이 여기고 무한히 존대하고 내세워주며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모든 사업을 진행해나갈데 대하여 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은 일군들의 심장의 벽을 세차게 두드렸다.

이민위천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한생의 좌우명이였다.

이 세상에 전지전능한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하느님이 아니라 인민이라고, 인민이 있어 나라도 있고 조국도 있다고 하시며 인민사랑의 길을 걷고 걸으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한평생이 뜨거운 추억속에 어려왔다.

일군들과 당원들에게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지니셨던 숭고한 인민관을 깊이 심어주어 그들이 인민을 자기 부모처자처럼 여기고 사랑하도록 이끌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의 손길은 얼마나 뜨거운것이였던가.

무슨 사업을 하나 조직하여도 인민을 먼저 생각하는것이 바로 한평생 오로지 우리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생전의 뜻을 받드는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시며 행사일정까지 바꾸도록 특별조치를 취해주신 이야기, 인민들이 앉는 의자에 앉아 공연을 관람하겠다고 하시며 중앙관람석을 없애도록 일군들에게 당부하신 인민극장의 4월 28번좌석에 대한 일화는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의 세계를 오늘도 소중히 전하여주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인민들의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도록 하신 은정넘친 조치들, 일군들은 고난의 행군을 하고 인민들은 락원의 행군을 하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며 우리 일군들이 인민을 위해 생의 마지막시기까지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장군님의 숭고한 애민헌신의 정신을 본받아 인민을 위하여 뛰고 또 뛰는 참된 복무자가 되도록 이끌어주신 사실을 비롯하여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길우에 꽃펴난 일화들은 그 얼마인지 모른다.

어찌 그뿐이랴.

뜻깊은 조선로동당 제4차 세포비서대회장에서 인민을 하늘처럼 숭배하고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는 사람이 바로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라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르치심은 우리 일군들이 어머니당의 본성에 맞게 당사업전반을 인민대중제일주의로 일관시켜나가도록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지침으로 되였다.

가는 곳마다에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정신을 지니고 당사업을 철저히 인민존중, 인민사랑으로 일관시켜나가는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이 수많이 있기에 인민들은 우리 당을 어머니라 부르며 믿고 따르는것이다.

당에 대한 인민들의 지지와 신뢰는 중요하게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의 사업태도와 투쟁기풍에 달려있다.

당창건 일흔돐을 맞는 올해에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당의 령도력과 전투력을 강화하는데서 새로운 리정표를 마련하여야 할 사람들은 바로 일군들이다.

전당에 인민을 존중하는 기풍이 차넘치게 하라!

우리 일군들이 누구나 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한평생 걸으신 인민사랑의 길을 우리 당과 함께 꿋꿋이 이어가는 참된 동지, 전우가 될 때, 어머니당의 본성에 맞게 당사업전반을 인민대중제일주의로 일관시켜나갈 때 당의 두리에 천만군민은 더욱 굳게 뭉쳐지게 될것이며 당의 전투적위력은 더욱 강화되고 최후승리의 날은 앞당겨질것이다.

본사기자 리금분

위대한 장군님의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 가슴마다에 새기며 치료예방사업을 개선해나갈 결의에 넘쳐있다. -평양산원에서- 본사기자 찍음

인민에게 의거하면 백전백승

우리 당은 인민을 믿고 인민에게 의거하여 투쟁함으로써 혁명과 건설을 령도해오는 전로정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할수 있었다.

전당에 인민에게 의거하는 기풍이 차넘치게 하여 올해에 당의 령도력과 전투력을 강화하는데서 새로운 리정표를 마련하시려는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확고한 의지이고 결심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은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우리 인민에게 의거하여 우리 식, 위대한 장군님식으로 이 땅우에 사회주의강성국가, 천하제일강국을 보란듯이 일떠세울것입니다.》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 풀어나가는것은 우리 당의 력사적뿌리가 내리기 시작하던 혁명의 려명기로부터 당조직이 언제나 인민들속에서 인민들과 생사운명을 같이하는 과정에 앞을 가로막는 난국을 헤치고 승리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면서 체득한 고귀한 투쟁방법이다.

항일의 혈전만리가 수놓아진 수많은 산발과 골짜기들, 이름모를 마을과 산전막들을 돌아보면 인민을 믿고 인민에게 의거하면 백번 승리하지만 인민을 믿지 않고 멀리하면 백번 패한다는 진리를 뜨겁게 새겨안을수 있다.

우리 당은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는 전기간 언제나 우리 인민에게 의거하였다.

해방후 힘있는 사람은 힘으로,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돈있는 사람은 돈으로 건국사업에 이바지하자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호소에는 우리 당이 철저히 인민에게 의거하여 모든 사업을 해나가도록 하시려는 철석의 의지가 깃들어있다.

혁명이 승승장구하고 당의 권위가 높아질수록 인민에게 의거하는 기풍은 더욱더 높이 발휘되였다.

인민의 요구가 곧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우리 혁명의 목표로 되였으며 우리 당은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고 그들을 혁명과 건설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인민에게 의거할수록 그만큼 혁명이 전진하고 당의 위력이 강화되였다.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더욱 믿고 의지해야 할것은 인민이였다.

우리 당은 혁명의 앞길에 시련과 난관이 겹쌓일 때마다 인민대중속에 더욱 깊이 뿌리박고 그들의 의사와 요구에 귀를 기울였으며 거기서 새 힘과 용기를 얻고 해결방도를 찾아내군 하였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의 법동농민과 락원의 녀당원, 전후 강선로동계급과 태성할머니는 우리 당이 의거하고 크나큰 힘을 얻은 인민의 모습이였다. 시련과 난관이 클수록 인민대중속에 들어가 그들에게 의거하여야 한다는 진리의 정당성은 뚜렷이 확증되였다.

지난 세기 1990년대의 사회주의수호전에서도 우리 당은 인민에게 의거하여 승리를 안아왔다.

형언할수 없는 시련과 난관이 겹쌓이던 그 시기 우리 당은 다른데를 넘겨다본것이 아니라 인민을 찾아가 인민에게 의거하는데서 사회주의수호의 열쇠를 찾았다.

우리 당이 적들이 공화국을 압살하려고 악랄하게 책동해도 언제나 든든한 배짱으로 눈섭하나 까딱하지 않고 강성국가건설을 성과적으로 령도해올수 있은것은 인민에게 튼튼히 의거하였기때문이다.

다박솔언덕으로부터 최전연의 칼벼랑길, 파도사나운 배길과 이어진 초소들, 눈보라강행군길과 잇닿은 일터와 마을들에는 인민을 믿고 인민의 힘을 발동시키면 이 세상에 못해낼 일이 없고 극복하지 못할 난관이 없다는 불멸의 진리가 진하게 새겨져있다.

모든 문제를 인민에게 의거하여 해결해온것은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마련하신 빛나는 전통이며 경애하는 원수님에 의하여 변함없이 이어지는 우리 당의 사업기풍이다.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첫 진군길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천만군민과 팔을 끼고 어깨를 겯고 나서시였다.

이것은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온 우리 당의 력사와 전통이 더욱 숭고한 높이에서 계승될것이라는것을 보여준 불멸의 화폭이였다.

전당에 인민에게 의거하는 기풍이 차넘치도록 할데 대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올해 신년사에서 중요하게 강조하시였다.

모든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인민에게 의거하는 당사업기풍이 전당에 차넘치게 하여 당창건 일흔돐을 맞는 올해에 당의 령도력과 전투력을 더욱 강화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한영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였다

콜롬보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대통령

마이트리팔라 씨리쎄나각하

나는 당신이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대통령으로 선거된것과 관련하여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이 기회에 우리 두 나라사이에 존재하는 친선협조관계가 두 나라 인민의 공동의 리익에 맞게 더욱 좋게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당신의 책임적인 사업에서 큰 성과가 있기를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체104(2015)년 1월 11일 평 양

신년사학습을 심화시켜

은률광산 초급당위원회에서

은률광산 초급당위원회에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하신 신년사의 사상과 내용을 깊이 심어주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고있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가 나오자마자 모든 당세포들과 근로단체조직들에서 신년사학습을 짜고들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데 기초하여 그것이 정확히 집행되게 밀어주고있다.

이와 함께 일군들부터 학습을 실속있게 하여 신년사의 사상과 기본정신을 환히 꿰들도록 하는 한편 신년사의 내용을 가지고 해설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가고있다.

독보와 해설모임 등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되는 신년사학습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커다란 실효를 나타내고있다.

얼마전에도 광산의 여러 단위들에서는 신년사를 가지고 문답식학습을 진행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에서 제시된 강령적과업을 무조건 관철해나갈 열의속에 진행된 문답식학습에서는 많은 단위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학습을 통하여 신년사의 사상과 내용을 깊이 체득한 광산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조국해방 70돐과 조선로동당창건 70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도 광물생산에서 혁신을 일으켜 경애하는 원수님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갈 불같은 맹세를 다지였다.

하기에 이곳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새해벽두부터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승리의 북소리를 드세차게 울리며 광물생산에서 혁신을 이룩해나가고있다.

로농통신원 심윤섭

신념과 의지로 한생을 불태우신 열혈혁명가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에 떨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의 거세찬 진군에는 그 장엄한 격류를 주도하는 위대한 정신이 있다.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맞받아뚫고나가며 백번 쓰러지면 백번 다시 일어나 끝까지 싸우는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

죽어도 살아도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하여 만난을 헤치며 싸워 승리한 항일혁명선렬들의 그 필승의 신념과 불굴의 기개가 오늘 천만군민의 심장마다에 그대로 맥박치고있다.

항일혁명선렬들의 전렬에는 조선혁명의 첫 기슭에서 어버이수령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혁명의 수령으로 받들어모시고 혁명승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였으며 최악의 역경속에서도 혁명가의 삶을 빛내이신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권동지도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력사는 자기 인민과 인류의 미래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한 사람들의 업적은 영원히 남아있으며 그들의 위훈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빛난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혁명가의 삶은 령도자의 사상과 의도를 관철하는 투쟁속에서 빛나게 된다.

조국과 혁명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은 불요불굴의 혁명투사이신 김형권동지의 빛나는 한생을 관통하고있는 가장 고결한 풍모였다.

김형권동지의 이 숭고한 혁명적풍모는 선군혁명위업이 개척되던 어려운 시기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로선을 실현하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신데서 높이 발휘되였다.

력사적인 카륜회의에서 항일무장투쟁로선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조선혁명군을 결성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장차 무장투쟁을 국내깊이에로 확대하기 위하여 조선혁명군 소조들을 국내에로 파견하시였다.

항일무장투쟁을 국내깊이에로 확대발전시켜나가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활동의 첫 시기부터 구상하여오신 전략적방침이였다.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계신 김형권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으로부터 국내진출의 어려운 과업도 남먼저 받아안으시였으며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의 앞장에서 헌신적으로 싸우시였다.

주체19(1930)년 8월 조국땅에 들어서신 김형권동지께서는 적들의 삼엄한 경계망을 뚫고 삼수, 풍서를 거쳐 풍산군(당시) 파발리에 이르시여 이곳 경찰관주재소를 습격하고 이 고장 인민들을 악착하게 탄압하던 일제순사부장을 단호히 처단하시였다.

김형권동지께서는 총소리를 듣고 모여온 인민들앞에서 반일연설을 하시였다.

《동포형제자매들! 망국노의 처지에서 신음하는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라를 사랑하는 남녀청년들은 손에 무장을 들고 일떠서서 일제를 때려부십시다!》

그이의 힘있는 연설은 인민들의 반일투쟁열의를 불러일으켰다.

김형권동지의 지도밑에 무장소조는 일제의 삼엄한 경계망을 뚫고 리원군, 북청군, 홍원군 등 함경남도일대에 진출하여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중속에 혁명의 씨앗을 뿌려나갔다.

혁명가의 신념은 가장 준엄한 시각에 검증되는 법이다.

적극적인 정치군사활동을 전개해나가시던 김형권동지를 비롯한 무장소조원들이 변절자의 밀고로 불행하게도 체포된 후 얼마동안 함흥감옥에 있을 때였다.

법정에 나서신 김형권동지께서는 일제의 죄상을 단죄하시면서 인간백정인 일제놈들을 때려부시고 빼앗긴 조국을 반드시 되찾아야 한다고 소리높이 웨치시고는 혁명가요를 우렁차게 부르시였다.

김형권동지께서는 추상같은 목소리로 조선인민은 일제침략자들의 악독한 죄행을 천추에 잊지 않을것이며 천백배로 복수하고야말것이라고 하시면서 무장한 강도들과는 무장으로 싸워야 한다고 선언하시였다. 그러시고나서 《강도 일본제국주의를 타도하라!》, 《조선독립 만세!》를 소리높이 웨치시여 적들을 전률케 하시였다.

김형권동지의 불굴의 기상앞에 당황망조한 일제는 서울에서 한명의 방청자도 없는 비밀재판을 벌려놓고 함흥지방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시인하였다.

김형권동지께서는 15년의 징역형을 받고 서울의 마포형무소에 수감되시여서도 교형리들의 악형이 가해지면 가해질수록 상상조차 할수 없는 불굴의 투지로 원쑤놈들을 전률케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생명의 마지막순간에 수감자들에게 《김일성은 내 조카이다. 그는 지금 만주에서 큰 혁명부대를 이끌고 왜놈들을 족치고있다. 그 부대가 국내에 쳐들어올 날은 멀지 않았다.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 무장으로 싸우라. 무장을 들고 싸워야 왜놈들을 쫓아내고 나라를 해방할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살아남은 동무들이 끝까지 싸워달라는것, 앞으로 가족들을 만나면 최후의 순간까지 굴하지 않고 싸웠다는것을 전해달라는 부탁을 남기시였다.

참으로 수령이 준 혁명과업을 끝까지 수행하기 전에는 죽을 권리도 없다는 확고부동한 신념과 의지를 지니신 김형권동지이시기에 놈들의 갖은 고문속에서도 굴하지 않으시고 옥중투쟁을 힘있게 벌려 원쑤들을 당황망조케 할수 있었으며 조선혁명가들의 기개를 남김없이 시위하실수 있었던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김형권동지의 한생에 대하여 추억하시면서 나는 형권삼촌을 생각할 때마다 카륜회의결정을 관철하는 길에서 청춘을 서슴없이 바친 수많은 전우들을 눈앞에 그려보군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정녕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권동지의 빛나는 한생은 혁명가는 어떻게 자기의 혁명적신념을 지켜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불굴의 한생이였다.

혁명이자 신념이고 신념이자 혁명이다. 투쟁의 길에 나선 혁명가들에게 있어서 생명보다 더 귀중한것이 혁명적신념이다.

이것이 바로 백두에서 시작된 우리 혁명의 고귀한 전통이며 세대와 세대를 이어 맥박치는 천만군민의 심장의 고동이다.

이 고귀한 전통을 새겨안은 우리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만 계시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필승의 신념과 의지를 안고 백두의 눈보라마냥 폭풍쳐나가며 이 땅에 기어이 최후승리의 그날을 앞당겨오고야말것이다.

전광남

바다가양식에 힘을 넣어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하자

땅농사에 비해 실리가 큰 바다가양식

수산부문의 일군들과 나눈 이야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세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있는 우리 나라에서 수산업을 발전시키는것은 인민들의 부식물문제를 푸는 좋은 방도의 하나입니다.》

부침땅면적이 제한된 우리 나라에서 바다가양식을 대대적으로 하는것은 인민들의 먹는 문제해결의 중요한 방도의 하나이다.

지금 수산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수산정책을 높이 받들고 물고기잡이와 함께 바다가양식에 큰 힘을 넣어 풍요한 바다나물작황을 마련하고있다.

얼마전 수산부문의 일군들과 만난 우리는 바다가양식의 중요성과 그로부터 얻게 되는 경제적실리, 바다가양식을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방도적인 문제를 놓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기자: 세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있는 우리 나라에서 바다가양식을 발전시키는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수산성 국장 최충남: 그렇다. 우리 나라에는 해양학적으로 바다가양식에 적합한 수역들이 많다. 이 유리한 조건을 잘 리용하면 경지면적이 제한된 우리 나라에서 크게 품을 들이지 않고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보다 원만히 해결할수 있다.

자료적으로 놓고보자. 서해의 양식장 1정보에서는 평균 140t의 다시마를 수확할수 있다. 여기에 드는 자재는 띄우개생산원료 100kg과 바줄 1.3t정도면 된다.

이것을 투자 대 효과측면에서 따지면 대단한 리득이다. 바다가양식은 밭갈이와 씨뿌리기, 김매기, 비료주기 등의 여러 단계를 거치는 남새농사에 비해 단순하고 한번 투자된 자재를 잘 관리하면 여러해동안 리용할수 있다.

양식장에 많이 모여드는 떠살이생물은 조개류들이 먹고 그 배설물은 다시마, 미역이 자라는데 좋은 생태환경을 지어주도록 고리형순환생산체계를 형성해주면 보다 큰 경제적실리를 얻을수 있다. 국제시장가격으로 환산해도 다시마와 미역, 섭조개와 밥조개양식을 비롯한 바다가양식은 땅농사에 비해 몇배이상의 리득을 얻을수 있다.

수산성 국장 김선애: 일찌기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바다가양식의 강화발전을 위한 휘황한 길을 밝혀주시며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

동서해안의 곳곳에 수많은 바다가양식장들이 꾸려졌으며 세계적인 발전추세에 맞게 바다나물과 밥조개, 해삼, 섭조개 등 바다동물류의 혼합양식을 위한 재배장들과 과학연구기지들도 있다. 이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를 효과있게 리용하면 생산을 얼마든지 늘여 인민들이 실지 덕을 보게 할수 있다.

미역과 김, 밥조개와 해삼, 섭조개 등은 맛도 좋고 영양가치가 높아 예로부터 널리 알려져왔다. 이 수산물들에는 요드와 광물질 등 인체에 필수적인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어 영양가가 높은 부식물, 건강식품으로 주목되고있다. 특히 수질오염이 없는 우리 나라 바다가에서 생산된 수산물들은 그 질이 좋아 세계적으로도 수요가 높다.

때문에 바다가양식은 해양학적으로 유리하고 경지면적이 제한된 우리 나라에서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을 위한 가장 빠른 길이라고 말할수 있다.

기자: 바다가양식의 현 실태와 그 발전에서 나서는 문제는 무엇인가.

책임부원 리광봉: 우리 성안의 일군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에 눈굽을 적시며 어떻게 하면 인민들의 식탁에 바다향기가 풍기게 할수 있겠는가를 생각하며 뛰고 또 뛰고있다.

올해에 풍요한 다시마작황을 마련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열리였다.

지난해보다 충실한 다시마종자를 확보하여 각지 양식장들에 보내주었는데 씨붙임이 잘되여 다시마모가 최고 1.4m까지 자랐다. 우량품종을 받아들이는 사업에서도 눈에 띄는 성과가 이룩된 결과 틀림없이 지난해보다 많은 수산물이 생산될것이다.

지금 동서해의 바다가양식장들에서는 모내기가 마감단계에 들어섰다. 성안의 일군들과 도수산관리국의 일군들은 현지에 내려가 조직사업을 패기있게 짜고들고있다. 각지 양식공들은 불리한 바다날씨조건에도 아랑곳없이 일손을 불이 번쩍 나게 다그치면서 양식장관리를 책임적으로 하여 정보당 수확고를 높일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안아오고있다.

동시에 선진과학기술성과를 받아들여 섭조개, 밥조개, 해삼 등 맛좋은 수산물생산면적을 늘여 인민들에게 다종다양한 수산물이 더 많이 차례지도록 하기 위한 작전도 펼치고있다.

책임부원 유순철: 바다가양식에 대한 사회적관심을 높이고 이 사업을 군중적으로 활발히 내민다면 더 좋은 성과를 거둘수 있다.

련관부문과 단위들에서 바줄과 띄우개생산원료를 원만히 보장하고 통나무와 철강재를 비롯한 적은 량의 자재만 보장해주면 바다가양식이 커다란 생활력을 발휘할수 있다. 파유리를 리용하는 유리띄우개와 여러가지 유휴자재에 의거하는 바줄생산을 늘여 수입자재의 국산화비중을 높이면 같은 조건에서 더 많은 수산물을 생산할수 있다.

바다가양식을 군중적으로 벌리는것 또한 중요하다. 모두가 떨쳐나 바다가양식에 필요한 띄우개와 부착줄을 만들어 수산부문에 보내주며 해안가를 끼고있는 시, 군들과 기관, 기업소들에서 바다가양식을 주민들과 종업원들의 식생활향상을 위한 중요한 공간으로 보고 여기에 큰 힘을 넣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들은 농산과 축산, 수산을 3대축으로 하여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고 식생활수준을 한단계 높여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받들고 바다가양식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오늘의 투쟁에서 기수, 전위투사가 되겠다는것을 굳게 결의한다.

본사기자 전성삼

5차속음에서 7차속음에로

구미포바다가양식사업소 일군들의 사업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수산업발전에 힘을 넣어 물고기생산을 늘이는것과 함께 경제적효과성이 높고 발전전망이 큰 바다가양식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바다가양식에서 속음생산은 매우 중요하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구미포바다가양식사업소에서는 지난해부터 5차속음에서 7차속음에로의 방향전환을 하였다. 주목되는것은 속음회수의 증가와 함께 같은 재배면적에서의 생산량도 계통적으로 늘어나고있는것이다. 지난해 떼당 생산량만 보더라도 그 전해의 1.3배나 된다.

지배인 김영호동무의 말에 의하면 7차에 달하는 속음의 목적은 바다나물성장에 더 유리한 조건을 지어주면서 떼당 생산성을 끌어올리는데 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속음회수가 늘어날수록 생산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그런데 이 사업소에서는 어떻게 종전에 5차로 그치던 속음회수를 2회나 더 많은 7차로 늘이면서도 생산성까지 동시에 높이고있는가 하는것이다.

무엇보다도 합리적인 속음위치선정에 비결이 있다. 실례로 사업소에서는 30㎝간격으로 1차속음을 한다. 보름후이면 벌써 속음했던 빈자리가 없어지는데 그것은 바다나물들의 성장이 그만큼 활발해졌다는것을 의미한다. 2차로부터 7차까지의 속음위치도 매번 달라진다. 실례로 2차속음은 1차속음을 한 위치로부터 좌우 15㎝ 되는 곳에서, 3차속음은 2차속음을 한 위치로부터 또 좌우 7.5㎝ 되는 곳에서 한다. 이를테면 속음을 모줄의 모든 위치에서 자그마한 편차도 없이 고르롭게 진행한다는것이다. 그로 하여 바다나물이 크면서 좁아진 공간에서 서로 맞붙어 성장에 지장을 받던 현상이 극복되고 모든 모들이 자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며 골고루 자라게 되였다. 지난해 5월초까지 7차속음을 진행해본데 의하면 5차속음으로 그쳤던 그 전해의 5월초에 비해 생산실적이 1.3배로 올랐다고 한다.

비결은 여기에만 있지 않다. 바다물온도에 따르는 속음방법도 5차속음에서 7차속음에로의 이행에서 적지 않은 역할을 놀고있다. 1월과 2월에 비해 3월이후부터는 물온도가 상대적으로 올라가면서 바다나물의 성장도 활발해지는데 그에 따라 속음량도 늘여야 더 높은 실적을 기대할수 있다.

사업소에는 물온도에 의한 생산체계가 정연하게 서있다. 양식장의 곳곳에 있는 측정떼들을 례들수 있다. 기술과일군들은 이 측정떼들을 통해 물온도에 따르는 떼당 성장률, 바다나물의 kg당 성장률, 길이성장률을 며칠에 한번씩 종합하여 대비적으로 분석하고있다. 뿐만 아니라 결과를 책임일군들에게 정상적으로 통보해주고있다.

책임일군들은 그 자료에 기초하여 매 작업반의 하루생산량을 규정해준다. 때로는 상승하던 바다물온도가 기후변화로 인해 갑자기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일군들은 이러한 정황에 대처하여 속음량을 조절한다. 그것이 바다나물생산을 늘이는데서 어떤 긍정적작용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더 언급할 필요가 없다.

이 수산사업소의 일군들처럼 바다를 보다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과학적인 작전을 펼치고 하나하나 실천해나간다면 먹는 문제해결에서 눈에 띄는 전진이 이룩되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드넓은 다시마양식장을 타고앉아

부포바다가양식사업소에서

서해의 부포앞바다에 펼쳐진 드넓은 다시마양식장이 새해벽두부터 부글부글 끓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부포바다가양식사업소 일군들과 양식공들이 겨울철의 사나운 날바다와 싸우며 다시마모내기와 속음생산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백두의 혁명정신과 창조적투쟁으로 마련한 자랑찬 선물을 안고 10월의 대축전장에 떳떳이 들어서야 합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사업소에서는 지난해 바다나물생산에서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한 기세를 늦춤이 없이 올해에는 더 많은 수산물을 생산하여 10월의 대축전장에 떳떳이 들어설 높은 목표를 세우고 힘차게 투쟁해나가고있다.

사업소의 일군들은 바다물흐름과 물온도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한데 기초하여 다시마모내기와 속음생산을 다그치기 위한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고있다.

배를 타고 들끓는 양식장에 진출한 일군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의 구절구절에 담겨진 사상과 정신을 대중속에 깊이있게 해설선전하여 그들의 정신력을 적극 발동하는 한편 다시마모내기와 속음생산에서 나서는 기술적요구를 철저히 지키도록 생산조직과 지휘를 잘해나가고있다. 총공격전의 기수가 되여 전진하는 대오의 앞장에 선 일군들의 이신작칙은 당면한 다시마모내기와 속음생산에 진입한 양식공들의 전투적사기를 북돋아주고있다.

기동예술선동대원들의 경제선동이 힘있게 벌어지는 속에 양식장들에서는 혁신의 불바람이 세차게 일고있다.

생산1, 2, 3직장이 사회주의경쟁열풍을 일으키며 련일 혁신적성과를 이룩하고있다.

직장의 일군들은 작업시간을 최대한 효과있게 리용하도록 작업조직을 깐지게 하면서 작업반별증산경쟁을 실속있게 조직하고있다.

인민들의 식탁우에 바다향기가 풍기게 하는데서 자기들이 큰 몫을 맡고있다는것을 깊이 자각한 양식공들은 맵짠 바다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매일 계획을 넘쳐 수행하고있다.

생산4, 5직장의 일군들과 양식공들도 드넓은 양식장을 타고앉아 다시마모내기와 속음생산을 다그치면서 태장관리를 책임적으로 해나가고있다.

공무직장을 비롯한 보장부문에서도 바다나물생산을 양식공들과 함께 책임졌다는 높은 자각을 안고 설비들에 대한 점검보수에 힘을 넣고 부속품가공을 따라세우고있다.

대중의 드높은 생산열의에 맞게 사업소에서는 총화, 평가사업을 실속있게 하고 앞선 단위들의 좋은 경험을 널리 일반화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다.

글 및 사진 특파기자 리승철

50㎝에서 찾아낸 1.5배의 증산열쇠

옹진바다가양식사업소 일군들의 사업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과학기술의 힘으로 모든 부문을 빨리 발전시키고 인민의 락원을 일떠세우자는것이 우리 당의 결심이고 의지입니다.》

땅농사와 마찬가지로 바다농사도 과학농사이다. 같은 면적의 양식장이라고 해도 바다나물재배방법에 따라 결과가 차이난다. 때로는 범상히 여겼던 자그마한 요소에서 증산의 큰 열쇠를 찾아쥐는 경우도 있다.

옹진바다가양식사업소의 여러 양식장들에 나가보면 바다나물이 자라는 하나하나의 떼들이 주변의 양식사업소들과는 좀 다르게 형성되여있다는것을 대뜸 느낄수 있다.

하나의 길이가 7m정도인 모줄들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나란히 70여줄 배치되여있다. 첫번째 모줄로부터 마지막모줄까지의 거리는 대체로 50m정도이다. 일명 한떼라고 부르는 이 직4각형모양의 바다나물재배구역은 모줄들의 량끝을 고정시켜주는 떼줄들과 그에 붙은 띄우개들에 의해 호상 구별된다. 여기까지는 다른 바다가양식사업소들과 큰 차이가 없다. 특별한것은 매 모줄들의 가운데부분과 매듭을 이루며 뻗어간 류다르게 굵은 바줄이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 누구나 관심을 가지는 이 바줄은 바다나물성장에서 어떤 역할을 노는가.

땅에서 자라는 식물들과 마찬가지로 바다나물도 충분한 빛합성을 요구한다. 그러나 땅우로 드러나있는 식물들과 달리 물속에서 성장하는 바다나물의 빛합성을 원만히 보장하자면 품도 많이 들며 제기되는 기술적문제도 적지 않다. 일반적으로 바다나물이 성장함에 따라 모줄에는 점점 더 큰 짐이 실리게 된다. 그렇게 되면 모줄들은 자연히 활등모양으로 휘여드는데 매 모줄들의 가운데부분은 최고 50㎝까지 바다물속에 잠긴다.

양식장에서는 흔히 있을수 있는 현상으로만 여기며 스쳐지나던 이 50㎝에 사업소의 일군들이 주목을 돌린것은 여러해전부터였다. 전국각지에서 과학농사열풍이 더욱 세차게 불고 같은 면적의 땅에서 종전보다 많은 량의 농작물을 수확하는 단위들이 늘어나는 현실은 이곳 일군들에게도 큰 영향을 주었다.

바다농사도 땅농사와 다를바 없다. 우리도 바다가양식을 보다 과학화하자.

당조직의 지도밑에 종전의 양식방법들에서 대담하게 벗어나기 위한 작전이 펼쳐졌다. 특히 빛합성이 바다나물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구체적으로 연구, 분석, 종합되는 과정에 50㎝에 초점이 쏠리였다. 명백히 이 수자는 바다나물의 성장 특히 빛합성률을 높이는데 적지 않게 미치는 부정적영향을 시사해주고있었다.

하다면 그것을 감소시킬 방도는 무엇인가. 굵은 바줄을 띄우고 바다물속에 제일 깊이 잠기는 매 모줄들의 가운데부분을 끌어올려 그 바줄에 고정시키면 되지 않겠는가.

간단한것 같으면서도 많은 품을 요구하는 원리였다. 땅이 아니라 바다에서 진행해야 하는 작업인것으로 하여 더욱 그러했다. 사업소의 일군들은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수십차에 걸치는 기술강습과 기술학습을 진행하였다. 양식공들과 바다에 나가 작업도 같이하고 나타나는 부족점은 즉시에 바로잡아주었으며 모두가 실천속에서 그 방법에 정통하도록 요구성을 높이였다.

결과는 혁신적이였다. 같은 양식장면적에서 생산량은 그전에 비해 1.5배로 뛰여올랐던것이다.

지난해만 놓고보아도 사업소에서는 이 방법으로 그 전해에 비해 수천t이나 더 많은 바다나물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

무슨 사업을 하나 전개하여도 과학적으로 타산하고 그것이 실리가 기대되는 생산방법이라면 완강히 내밀어 끝장을 보고야마는 이곳 사업소일군들의 일본새는 본받을만 하다.

본사기자 김충성

마음먹고 해볼만 한 일이다

문천식료공장의 바다가양식장을 돌아보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바다를 낀 곳에서는 바다가양식을 많이 할 생각을 하여야 합니다.》

원료기지농사와 축산을 잘하여 온 나라에 널리 알려진 문천식료공장이 바다가양식에서도 소문을 내고있다.

얼마전 공장을 찾은 우리는 장일환반장의 안내를 받아 이곳 양식장을 찾았다. 전마선을 타고 바다로 나갈수록 소담하게 자란 미역들로 물면은 진한 밤색을 띠고있었다.

볼수록 흐뭇한 바다농사작황이였다. 그 주인들은 기껏해서 9명에 불과하며 작은 건물과 전마선 2척이 생산수단의 전부라고 동행한 반장이 이야기하였다. 그러면서 일판을 더 크게 벌려 형성한 미역과 섭조개혼합양식장의 작황이 대단히 좋다고, 2.5정보의 양식장에서 지난해 적지 않은 량의 맛좋고 영양가가 높은 수산물을 수확하여 종업원들과 시안의 주민들에게 공급하였다고 자랑삼아 덧붙여 말하였다.

하다면 이곳 식료공장에서는 바다가양식을 어떻게 짜고들어 진행하고있는가.

주목되는것은 바줄과 띄우개를 비롯하여 바다가양식에 절실히 필요한 자재들을 모두 자체로 해결하고있는 측면이다.

바다가양식철이 다가올 때면 공장의 종업원모두가 떨쳐나 쓰고버린 수지병들과 포장용발포수지들을 모아들인다. 종업원 한사람이 10개의 수지병과 2마대정도의 발포수지만 회수한다고 보아도 모아놓으면 수백개의 띄우개를 만들수 있는 원천이 생긴다고 한다. 수산반의 종업원들은 이렇게 회수한 수지병들과 발포수지를 일정한 크기로 자른 파그물로 한데 묶어 하루에 80개에 달하는 띄우개를 만드는데 보름정도면 바다가양식에 필요한 떼를 충분히 보장한다고 한다.

양식장틀거리를 형성하는 기본바줄과 미역, 섭조개부착줄의 해결방법도 별다른것이 없다. 공장에서는 시안의 수매기관들을 비롯한 여러 단위들과 련계하여 자투리천과 파다이야의 속심을 군중적으로 모아들인다. 이것들을 가지고 수동식바줄꼬는기계를 리용하여 비교적 큰 힘이 가해지는 기본바줄을 만들고 원료기지에서 나온 벼짚으로는 부착줄을 대량생산하여 수요를 보장한다.

우점이 많다. 큰 품을 들이지 않고 바다가양식에 필요한 자재를 자체로 해결하니 좋고 환경보호측면에서도 긍정할만 하다. 최근에는 미역과 섭조개혼합양식을 받아들여 떨어지는 미역부산물과 모여드는 떠살이생물은 섭조개들이 먹고 섭조개배설물은 미역이 자라는데 좋은 환경을 지어주니 고리형순환생산체계까지 형성되여 수확고가 높아지고 실리는 보다 커졌다.

지배인 정평옥동무는 이렇게 말하였다.

《원료기지농사와 축산을 내밀면서 바다가양식까지 겸하니 종업원들의 생활은 더욱 윤택해지고 공장에서 생산되는 부식물의 가지수는 나날이 늘어나고있습니다. 정말 바다가양식은 어디서나 마음먹고 한번 해볼만 한 일입니다.》

보고 들을수록 실리가 나는 일, 한번 해볼만 한 일이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해안을 끼고있는 모든 시, 군들과 단위들에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수 있으며 이들처럼 바다가양식을 군중적으로 벌리면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관철에서는 보다 큰 성과가 이룩될것이다.

본사기자

백두의 혁명정신과 창조적투쟁으로 마련한 자랑찬 선물을 안고 10월의 대축전장에 떳떳이 들어서자

인민경제 선행부문과 중요공업부문 단위들에서 궐기모임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올해신년사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인민경제 선행부문과 중요공업부문 단위들의 종업원궐기모임들이 각지에서 진행되였다.

모임들에서는 보고에 이어 결의토론들이 있었다.

보고자들과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신년사는 당의 령도따라 최후승리의 진군가를 높이 부르며 뜻깊은 올해를 위대한 승리의 해, 혁명적대경사의 해로 빛내이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 떨쳐나선 천만군민에게 필승의 신심을 안겨주는 전투적기치이라고 말하였다.

지난해에 이룩된 모든 승리와 성과들은 위대한 당의 현명한 령도와 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온 나라 천만군민의 불타는 애국충정과 헌신적투쟁이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라고 강조하였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력사적인 신년사에서 펼쳐주신 설계도따라 승리에 대한 확신과 열정에 넘쳐 사회주의 내 조국의 존엄과 부강번영을 위한 총공격전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이미 마련된 자립경제의 토대와 온갖 잠재력을 최대로 발동하여 인민생활향상과 경제강국건설에서 전환을 이룩하여야 합니다.》

순천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 2.8직동청년탄광 종업원궐기모임들에서 보고자들과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받아안은 석탄생산자들의 가슴가슴은 용암마냥 끓어번지고있다고 말하였다.

나라의 긴장한 석탄문제를 해결하는데서 지닌 책임과 임무를 한시도 잊지 않고 지난해 이룩한 성과에 토대하여 뜻깊은 올해에도 석탄산을 높이 쌓을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탐사와 굴진을 앞세우고 채굴조건이 유리한 막장들에 력량을 집중하는것과 함께 합리적인 채탄방법을 받아들이고 설비들의 가동률을 높여 화력발전소들을 비롯한 중요대상들에 필요한 석탄을 무조건 보장할것이라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요구되는 석탄을 원만히 생산보장할 혁명적열의에 넘쳐 천성청년탄광, 남덕탄광, 회안탄광 종업원들도 궐기모임들을 가지였다.

모임들에서 보고자들과 토론자들은 경제강국건설에서 석탄전선이 차지하는 위치와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생산에서 련일 혁신적성과를 이룩함으로써 올해 석탄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할것이라고 말하였다.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 청천강화력발전소, 수풍발전소 종업원들은 궐기모임들에서 올해의 총공격전에서 승리자의 영예를 떨칠 결의를 다지였다.

보고자들과 토론자들은 인민경제의 기본동력인 전력문제를 해결하는데서 전력생산자들의 임무는 매우 중요하다고 하면서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맞받아 뚫고나감으로써 생산에서 일대 비약을 일으킬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설비관리, 기술관리, 물관리를 짜고들고 설비들의 만가동, 만부하를 보장하는것과 함께 생산공정간, 교대호상간 련계를 긴밀히 하여 일터마다에서 전력증산의 동음이 세차게 울리게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평양시송배전부 종업원궐기모임에서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교차생산조직을 짜고들어 생산된 전기를 보다 효과적으로 리용하도록 하며 수도시민들이 애국의 한마음안고 한W의 전력이라도 절약하기 위한 사업에 적극 떨쳐나서도록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검덕광업련합기업소 종업원궐기모임들에서는 금속공업부문을 발전시켜나갈데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받들고 과학기술을 생명으로 틀어쥐고 우리 식의 현대화, 정보화를 다그쳐나갈 확고한 의지가 표시되였다.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주체철생산공정을 더욱 완비하고 설비들의 가동률을 최대한으로 높여 철강재와 연, 아연광물생산을 늘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데 대하여 강조되였다.

수입병을 없애고 원료, 자재, 설비의 국산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드세게 벌리며 당에서 내세운 전형단위들의 모범을 따라배워 기업소들의 면모를 일신시켜나갈데 대하여 강조되였다.

2.8비날론련합기업소, 흥남비료련합기업소,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 종업원궐기모임들에서 보고자들과 토론자들은 예비와 잠재력을 남김없이 동원하여 비날론과 비료, 여러가지 화학제품을 더 많이 생산하는것으로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당의 사상과 의도를 명심하고 대중의 앙양된 열의를 총폭발시켜 우리의 힘과 기술, 자원에 의거하여 모든것을 우리 식으로 창조하고 발전시켜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 룡성기계련합기업소, 평양326전선공장에서 진행된 종업원궐기모임들에서 보고자들과 토론자들은 조선속도창조의 불길높이 생산에 더 큰 박차를 가하여 청천강계단식발전소를 비롯한 중요대상들을 훌륭히 완공하는데 적극 이바지할 결의들을 표명하였다.

철도성 종업원궐기모임에서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모두다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에 떨쳐나서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철도운수를 결정적으로 추켜세우기 위해 헌신적으로 투쟁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자기 부문, 자기 단위 사업을 당과 국가앞에 전적으로 책임졌다는 각오를 안고 일군들부터가 패배주의, 보신주의, 요령주의를 불사르고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기수, 전위투사가 될것이라고 말하였다.

수송조직과 지휘를 짜고들고 5.18무사고정시견인초과운동을 활발히 벌려 날로 늘어나는 수송수요를 원만히 보장하여 모든 경제부문들이 활기를 띠고 원활하게 전진하도록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원산철도차량련합기업소, 만포객화차대 종업원들은 궐기모임들에서 생산공정들간의 련계를 강화하고 사회주의증산경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화차생산과 수리에서 기적과 혁신을 일으키며 기술개건사업을 다그쳐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궐기모임들에서 보고자들과 토론자들은 모두다 위대한 당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백두의 혁명정신과 창조적투쟁으로 마련한 자랑찬 선물을 안고 10월의 대축전장에 떳떳이 들어설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모임들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였다.

【조선중앙통신】

인민군대예술선동처럼 대중의 심금을 울리는 경제선동의 명중포화를!

10월의 대축전장에로 떠밀어주는 총진군의 힘찬 북소리

여러 단위 창작가, 예술인들 경제선동에 일제히 진입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받아안고 올해를 위대한 승리의 해, 혁명적대경사의 해로 빛내이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대고조전투장들에서 여러 단위 창작가, 예술인들이 새해벽두부터 화선선동의 포성을 높이 울리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의창발성을 높이 발양시키려면 경제선동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뜻깊은 올해에 혁명의 북소리 높이 울리며 강성국가건설의 전투장마다에서 애국충정의 불길, 창조와 혁신의 불바람이 세차게 나래치게 할 드높은 열의를 안고 문화성의 해당 부서일군들은 지난해말부터 빈틈없는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었다.

특히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전형단위로 내세워주신 조선인민군 제567군부대관하 18호수산사업소 예술소조활동을 비롯하여 인민군대에서 창조된 예술선동활동, 화선식정치사업의 귀중한 경험들을 깊이 연구하고 그를 본보기로 하여 뜻깊은 올해의 경제선동사업을 작전하는데 품을 들이였다.

인민군대식으로 경제선동사업을 전투적으로, 실효성있게 벌리기 위한 탐구끝에 해당한 조직사업들이 진행되였다.

일군들은 아래단위들을 하나씩 맡고 현지에 내려가 해당 단위의 창작지도일군들과 함께 경제선동공연의 정책적대를 뚜렷이 세우도록 지도를 구체적으로 짜고들었으며 창작가, 예술인들과 마음을 합치며 로력혁신자들에게 안겨줄 지원물자도 성의껏 마련하였다. 이렇게 만단의 준비를 갖춘 영화예술부문과 무대예술부문, 군중문화부문, 미술부문의 여러 단위 창작가, 예술인들은 새해에 들어와 위력한 경제선동의 포문을 일제히 열었다.

인민경제의 기본동력인 전력문제해결에서 중요한 몫을 맡고있는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와 동평양화력발전소에 나간 무대예술부문의 예술단체들에서는 힘있는 화선선동으로 전력생산자들의 투쟁열의를 북돋아주었다.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의 타빈직장과 열생산2직장에서 촬영소, 조선4.25예술영화촬영소, 평양영화음악록음소의 예술인들로 무어진 영화예술인경제선동대원들도 지난 2일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사동구역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에 나가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의 사상과 정신을 반영한 특색있는 공연무대를 펼쳐 이곳 농업근로자들과 건설에 동원된 로력혁신자들을 신년사 과업관철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중앙예술경제선전대, 직총중앙로동자예술선전대, 청년중앙예술선전대, 녀맹중앙예술선전대, 평양시예술선전대, 수도건설위원회예술선전대를 비롯한 예술선전대들도 총공격전을 벌려나가고있는 발전소, 공장, 협동농장, 탄광, 건설장 등에 나가 경제선동을 활발히 벌렸다.

여러 예술단들과 예술선전대들이 경공업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중요한 몫을 담당하고있는 단위들에 나가 격동적인 경제선동으로 생산자대중의 열의를 더욱 북돋아준 결과 김정숙평양방직공장,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을 비롯한 주요전투장마다에서 혁신의 동음이 세차게 울리고있다.

새해에 들어와 불과 며칠사이에 여러 단위의 창작가, 예술인들은 석탄공업부문과 전력공업부문, 농업부문, 건설부문의 대고조전투장들에서 1만 수천명을 대상으로 근 20회의 힘있는 화선선동을 진행하여 10월의 대축전장을 향해가는 전투원들의 가슴마다에 승리의 신심과 혁명적열정이 차넘치게 하였다.

만수대창작사, 중앙미술창작사, 평양시미술창작사를 비롯한 여러 미술창작단위의 창작가들과 평양미술대학의 교원들, 조선미술작품보급사의 보급원들도 전투적인 직관선동활동으로 대고조전투장들에서 생산자대중에게 풍부한 정서와 약동하는 생기를 안겨주었다.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와 김정숙평양방직공장에 나간 창작가들과 교원들은 로력혁신자들에 대한 초상소묘를 수십점이나 완성하여 현장에 게시하였으며 조선미술작품보급사의 보급원들은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 타빈직장에 수십점의 미술작품들을 전시하여 전력생산자들의 투쟁열의를 북돋아주었다.

조선중앙사진선전사의 사진창작가들도 수도의 동력생산기지들과 철도부문을 찾아가 수백명의 로력혁신자들에 대한 사진경제선동으로 10월의 대축전장에 자랑찬 선물을 안고 떳떳이 들어서려는 그들의 심금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훈련장들마다에 백두의 훈련열풍을 안아오고 사회주의건설의 격전장들마다에 당정책결사관철의 거세찬 불길을 지핀 인민군대의 예술선동활동의 화선나팔소리에 화답하여 10월의 대축전장으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총진군의 북소리는 앞으로도 더 높이, 더 힘차게 울려퍼질것이다.

본사기자 백성근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에 달려나가 힘있는 경제선동으로 생산자대중을 고무추동하고있는 중앙예술경제선전대원들 본사기자 김진명 찍음

총공격전과 경제선동

◇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는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역에서 경제선동의 북소리가 높이 울려퍼지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당정책교과서와도 같은 공연, 사상성과 예술성이 대단히 높은 훌륭한 공연, 우리 로동계급의 문화를 대표할수 있는 공연이라고 높이 평가하신 조선인민군 제567군부대관하 18호수산사업소 예술소조원들의 공연이 수도의 극장무대에서 펼쳐져 우리 시대 화선식정치사업, 예술선동활동의 귀중한 경험과 생동한 본보기로 일군들의 심장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제야의 종소리와 함께 터친 경축의 불보라의 장쾌한 뢰성과 때를 맞춰 대동력기지들에서 울린 예술인들의 경제선동의 북소리가 새해의 환희를 더해주었다. 로동계급의 심장의 분출과도 같고 당정책결사관철의 진군나팔소리와도 같은 투쟁과 신념의 우렁찬 노래소리가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해 폭풍쳐달리는 시대의 숨결과 박동에 거세찬 활력을 부어주고있다.

◇ 사상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리는데서 경제선동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대중을 사회주의경제건설에로 불러일으키기 위하여서는 경제선동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우리 당에 의하여 새롭게 창조된 경제선동대활동은 여러가지 선전선동수단과 방법을 배합하여 생산현장에서 기동적으로, 전격적으로 벌려 최상의 성과를 달성할수 있게 하는 우월한 정치사업이다.

경제선동대활동을 강화하여야 강성국가건설의 전투장들이 언제나 혁명적분위기로 부글부글 끓을수 있으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지칠줄 모르는 열정과 전투적기백을 가지고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을 창조할수 있다.

우리에게는 강력한 사상공세로 전국을 일시에 들었다놓을수 있는 선전선동력량과 수단이 있다.

올해는 백두의 혁명정신과 기상으로 사회주의수호전과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역에서 승리의 포성을 높이 울려 조국해방과 당창건 일흔돐을 혁명적대경사로 빛내여야 할 뜻깊은 해이다.

사회주의건설의 일대 전성기가 펼쳐진 1970년대에 진감했던 혁명의 북소리, 속도전의 진공나팔소리가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이 과감히 벌어지고있는 올해에 더욱 박력있게, 줄기차게 울려퍼지게 함으로써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일대 앙양이 일어나게 하여야 한다.

◇ 경제선동활동을 인민군대에서처럼 항일유격대식으로 하여야 실효가 크다.

조선인민군 제567군부대관하 18호수산사업소 예술소조공연처럼 당정책결사관철로 심장이 끓는 로동계급의 사상정신세계와 투쟁정신이 종목마다에 흘러넘치게 하여야 한다. 이곳 수산사업소 예술소조공연은 생산자대중을 당정책의 열렬한 신봉자, 철저한 관철자로 되게 하는데서 화선식정치사업, 예술선동활동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다시금 절감하게 하여주었다.

이들처럼 경제선동활동을 생산현장과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구체적실정에 맞게 격식과 틀이 없이 하면서도 당정책적대가 뚜렷하고 대중의 심금을 울릴수 있게 하여야 한다. 자기 부문, 자기 단위가 집행하여야 할 당정책을 현실과 결부하여 대중의 심장속에 깊이 심어주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중의 심장을 움직이지 못하는 선전과 선동은 아무리 하여도 의의가 없다.

매 종목마다에 혁명적열정과 전투적기백이 흘러넘치면서도 땀냄새, 기름냄새, 흙냄새가 푹푹 나게 하여야 한다.

항일유격대원들과 조국해방전쟁시기 화선정치일군들, 오늘의 인민군대 정치일군들처럼 사람들의 심장을 울릴수 있게 예술선동활동을 전투적으로 기백이 넘치게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온 나라가 경제선동의 불도가니로 세차게 끓어번지게 하여야 한다.

경제선동대대렬을 잘 꾸리고 현대적인 선전선동수단들을 잘 갖추어주며 필요한 자료와 자재, 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주어야 한다.

하여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전구들마다에서 울려퍼지는 경제선동의 북소리, 나팔소리가 10월의 대축전장에 들어서는 승리자의 자랑찬 함성으로 이어지게 하여야 한다.

공연수준과 군중의 공감

남포시예술단 일군들의 사업에서

남포시예술단의 창작지도일군들은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와 새해농사차비를 위한 전투장에서 진행할 첫 경제선동공연을 앞두고 진지한 토의를 거듭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대중의 심금을 울리는 경제선동을 힘있게 벌리면 온 나라에 혁명적열정과 기백이 차넘치게 할수 있으며 사회주의대건설전투장마다에서 끊임없는 혁신과 기적이 일어나게 할수 있습니다.》

단장 천금산, 부단장 박정훈 동무들은 지난 시기의 공연활동정형을 돌이켜보는 과정에 같은 종목이지만 그 형상수준과 환경, 어떤 종목을 내놓는가에 따라 박수소리가 다르다는것을 절실히 느꼈다. 창작지도일군들은 새해의 첫 경제선동공연을 준비하면서 이것을 놓치지 않았다.

일군들은 이 문제를 경제선동무대에 나선 예술인이 대중과 호흡을 잘 맞추는 문제와 련관시켜보았다.

대중과의 호흡을 잘 맞추자면 공연종목을 전투장의 주위환경과 대상의 특성, 군중의 심리에 맞게 선정하여야 했다.

흙냄새가 나는 노래, 쇠물냄새가 나는 노래를 부르는것이 좋다는것은 누구에게나 불보듯 뻔했다.

《포전길 걸을 때면》, 《땅과 농민》, 《뿌리가 되자》 등의 노래들은 협동벌에서 일하는 농업근로자들과 농촌에 도시거름을 실어내가는 지원자들의 정신력을 분출시키는데서 좋을것이라는데로 서로의 의견이 합쳐졌다.

그리고 《우리는 빈터에서 시작하였네》, 《아버지 어머니의 청춘시절》과 같은 노래들이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을 고무하는데 실효가 클것이라고 생각했다. 공연종목선정에 이어 창작지도일군들이 각별히 힘을 넣은것은 해당 종목을 맡아 수행할 배우선정이였다.

배우마다 성량과 소리빛갈, 낼수 있는 음역 등에서 기량의 차이가 있기때문에 같은 노래형상도 다르게 느껴진다. 그리하여 예술단에서는 기량발표회를 여러차례 진행하여 매 공연종목별로 분담을 다시 하였으며 그 분담안이 고정불변하지 않다고 선포하였다. 이것은 기량훈련열풍을 일으키는데 좋았다.

대중과의 호흡을 잘 맞추는데서 이동음향기재와 반주악기소편성, 반주편곡의 준비도 중요했다.

만일 작업소음이 세거나 약한데서 이동음향기재의 일률적인 소리증폭세기를 보장한다면, 반주악기소편성과 반주편곡도 경제선동공연의 분위기를 보며 능동적으로 바꾸지 못하고 고정격식화한다면 대중은 지루감을 느낄수 있었다.

창작지도일군들은 음향사들과 연주가들에게 말로만 강조할것이 아니라 그 어떤 주위환경의 영향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할수 있게 여러가지 방안을 미리 준비시키는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필요한 대책을 세워나갔다.

이런 충분한 사전준비밑에 진행한 남포시예술단의 첫 경제선동공연은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에서도, 새해농사차비를 위한 전투장에서도 응당한 실효를 나타냈다. 공훈배우 김병건 동무는 물론이고 여러 신인배우들이 재청, 삼청까지 받았던것이다. 박수소리도 요란했고 오래 지속되였다.

공연에 대한 대중의 열렬한 박수는 곧 군중의 적극적인 공감의 표시이다. 그런 박수를 받자면 공연대상의 심리와 감정정서적 특성, 때와 장소에 맞게 공연조직과 준비에 품을 들여야 한다. 매 사람에 따르는 정치사업의 처방이 있어야 하는것처럼 경제선동활동도 그 내용과 형식이 농장에서 할 때가 다르고 공장에서 할 때가 달라야 한다.

기업소인 경우에도 제강소에서의 공연이 다르고 수산사업소에서의 공연이 다르게 공연조직과 준비에 머리를 쓰고 품을 들여야 한다. 이것이 바로 남포시예술단 일군들의 사업에서 찾아보게 되는 중요한 경험이다.

본사기자

이렇게 대중의 심장에 불을 달자

* 신계군에서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예술선동은 매우 감화력이 큰 선동형식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받아안고 새해 첫 전투에 진입한 신계군안의 일군들과 인민들의 심장을 더욱 끓이며 열정에 넘친 애국의 호소가 대지를 진감하였다.

거름실어내기전투 현장에서 선동과 합창 《발걸음》으로 시작된 신계군기동예술선동대의 공연은 합창시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살며 투쟁하자》에 이르러 절정에 달하였다.

공연이 끝나는 순간 폭풍같은 박수소리가 터져나오고 여기저기에서 격동된 심정을 토로하는 목소리들이 울려나왔다.

전투적기백이 넘치는 공연과 열띤 호소는 첫날전투에서 1만 7000여t의 거름을 실어내는 놀라운 성과로 이어졌다.

미루벌을 휩쓸며 세차게 몰아치는 눈보라도 이들의 애국의 열기를 더욱 북돋아주는듯싶었다.

예술선동의 위력과 생활력을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가슴벅찬 광경이였다.

공연활동을 통하여 이들이 심장에 새겨안은것은 당정책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현실에 부단히 접근시켜 예술창조사업을 진행하는 바로 여기에 대중의 심장을 울리는 묘술이 있다는것이다. 신계군기동예술선동대가 오늘처럼 대중의 앞장에서 내달리는 기수로 되기까지에는 군당일군들의 깊은 관심과 노력이 깃들어있다.

—기동예술선동대가 달리는것만큼 군이 전진하고 도약한다. 기동예술선동대로 혁명적사상공세의 포문을 열고 사상전의 된바람을 일으키자. 전투적인 경제선동으로 대중의 심장에 불을 달고 호소도 하자.

이것이 군책임일군들의 확고한 관점이고 견해이다.

군당위원회에서는 지난 기간 이런 관점에서 기동예술선동대활동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고 당정책을 민감하게 반영하도록 정책적지도를 앞세우는것과 함께 기동예술선동대활동을 위한 조건보장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었다.

대본창작과 기량훈련으로 밤을 지새고 새날을 맞는 기동예술선동대원들의 곁에는 언제나 군당책임일군들이 있었다. 그 나날에 기동예술선동대활동방향과 작품토의를 위해 진행한 협의회와 시연회는 그 얼마인지 모른다.

대원들의 복장으로부터 시작하여 운수기재문제, 악기와 음향기재보장에 이르기까지 어느 하나도 군당위원회의 관심과 지도가 미치지 않은것이 없었다.

군당일군들이 특별히 힘을 넣은것은 그들의 생활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주는것이였다. 식량과 부식물, 땔감을 비롯하여 가정생활의 사소한 문제까지도 군당책임일군의 머리속에 항상 들어있었다.

수십리 밤길을 달려 공연장소에까지 찾아가 생일상도 차려주고 때없이 합숙에 들려 불편한것이 없는가를 살펴보며 마음쓰는 군당책임일군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은 마이크를 쥔 자신들의 사명과 임무를 다시금 깊이 자각하였다. 당정책을 민감하게 반영한 이들의 힘찬 경제선동은 군안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대중의 정신력을 분출시키고 뚜렷한 성과를 안아왔다. 지난해 불리한 조건에서도 알곡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단 한달만에 수십동의 살림집을 일떠세운것을 비롯한 자랑찬 성과들에는 군당일군들의 믿음과 기대에 고무된 기동예술선동대원들의 불같은 노력과 헌신의 자욱이 어려있다.

기동예술선동대활동을 중시하는 군당일군들의 혁신적인 안목과 진취적인 사업기풍은 뜻깊은 올해에도 새로운 결의를 안고 떨쳐나선 기동예술선동대원들에게 보다 큰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고있다.

기동예술선동대가 달리는것만큼 군이 전진한다!

이런 각오와 열정을 안고 신계군기동예술선동대원들은 오늘도 새해진군길에 산악같이 떨쳐나선 군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심장마다에 불을 달아주며 혁명의 북소리를 드세차게 울려가고있다.

김성민

당의 농업정책에서 묘술을 찾아쥐고 실천하자

중간지대농사에서 성과를 거둔 성천군 일군들의 사업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농업부문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은 농사를 잘하여 농업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는것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받들고 올해에 더 많은 알곡을 생산할 목표를 내세운 성천군 일군들에게는 지난해농사에서 거둔 성과속에서 찾아친 귀중한 경험이 있다.

당에서 하라는대로만 하면 풍년농사를 지을수 있다는것이다. 중간지대인 이 군의 지난해농사조건은 례년에 없이 불리하였다.

하지만 성천사람들은 당에서 하라는대로만 하면 풍년농사를 지을수 있다는 신념을 안고 떨쳐나 강냉이농사에서 최고수확년도수준을 돌파하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우리는 성천군 일군들의 사업을 통하여 당의 농업정책에서 묘술을 찾아쥐고 결사관철해나갈 때 알곡생산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다시금 새기게 되였다.

분조가 제발로 걸어가게 하자

군책임일군들이 농사에서 중요하게 틀어쥔것은 모든 분조가 제발로 걸어나가게 하는 사업이였다. 그것은 바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분조의 역할을 높여야 사회주의농촌경리를 발전시켜나갈수 있으며 농업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킬수 있다고 가르쳐주시였기때문이였다.

사실 지난 시기에도 군에서는 분조관리제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었다. 하지만 군안의 수백개 분조들의 알곡생산실적에서는 차이가 있었다. 책임일군들은 그 원인을 로력과 지력, 영농물자보장 등 여러 각도에서 분석해보았다. 결과 분조장들의 수준이 한결같지 못한데 주되는 원인이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였다.

책임일군들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돌이켜보지 않을수 없었다. 농장에 나가면 관리위원장, 리당비서, 작업반장들을 만나 실태를 알아보는것으로 그친 이전의 일본새를 생각할수록 자책이 컸다.

(이제부터는 모든 일군들이 작업반이 아니라 분조를 맡고 내려가 도와주자.)

군당책임비서 최명수동무는 이런 결심을 굳히였다. 다음날 일군들이 모인 자리에서 군당책임일군이 군급기관 부원이상 일군들에게 분조를 고정담당시키고 도와주게 하자는 제의를 하자 선듯 지지해나서는 일군들이 적었다. 해당 기관 책임일군들인 경우에는 분조농사에서 걸린 영농자재들을 풀어줄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거나 갓 임명된 부원들은 무엇을 도와줄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에서였다. 하지만 책임비서의 립장은 확고하였다.

—영농물자도 중요하다. 그러나 혁신의 가장 큰 예비는 대중의 정신력을 발동시키는데 있다. 분조원들과의 사업을 마음과의 사업, 감정과의 사업으로 전환시켜 그들을 불러일으킨다면 이보다 더 큰 방조가 어디 있겠는가.

일군들은 지금까지 농촌지원을 물질적 및 로력적지원으로만 여겨온 자신들을 돌이켜보며 이 사업에 발벗고나설 결의들을 다지였다.

그렇다면 분담을 한것으로 분조의 역할을 높여주는 문제가 풀렸는가. 아니였다. 군책임일군들은 사색을 거듭하며 실질적인 대책들을 하나하나 세워나갔다.

모든 일군들에게 담당분조수첩이 생겨나게 된 사실을 놓고보자.

어느날 책임비서가 상하협동농장에 내려갔던 한 군급기관 일군을 만났을 때였다. 그 일군은 담당분조의 거름생산량이 늘어났는데 이 기세로 나가면 계획한 기일안에 결속할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책임비서가 분조의 흙보산비료, 후민산염생산계획과 생산량이 얼마인가 묻자 그는 말문이 막히였다. 실태를 모른다는것은 그가 손님격으로 일하고있다는것을 말해주고있었다. 몇몇 일군들을 만나보니 실정은 마찬가지였다.

원인을 따져보니 일군들이 분조일을 자기 일처럼 여기는 높은 책임감이 부족한데 있었다. 더우기 앞선 영농방법과 기술을 모르기때문에 정치사업도 기술적지도도 참신하게, 귀에 쏙쏙 들어가게 진행하지 못하고있었다. 시급히 대책을 세워야 할 중요한 문제였다.

며칠후 군급기관 책임일군들은 책임비서가 내놓은 작업복 웃주머니에 넣을수 있는 수첩을 받아들었다. 겉표지에는 《담당분조수첩》이라는 글이 씌여져있었다. 펼쳐보니 분조의 경지면적과 알곡생산계획, 작물 및 품종배치로부터 씨뿌리기와 비료주기 등 농사일에 대한 구체적인 해답이 적혀있었다. 또한 일군들이 담당분조에 언제 내려가 무슨 일을 하였는가를 기록하게 되여있었다. 참으로 좋은 착상이였다.

그후부터 모든 군급기관 일군들이 이런 수첩을 가지고 담당분조에 내려가게 되였다. 그리고 군에 올라오면 수첩을 군당위원회 해당 부서에 제출하게 하였다. 그에 따라 군당위원회에서는 매월 날자를 정하고 우결함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면서 총화평가사업을 진행하였다.

이런 사업은 일군들의 관점과 일본새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게 한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일군들속에서는 분조실태를 손금보듯이 알고 실속있게 도와주는 미풍이 날로 꽃펴났다. 모든 영농공정이 기술적요구대로 진행되였고 작업의 량과 질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되였다. 그만큼 담당분조의 농사일을 끝까지 함께 책임지겠다는 일군들의 자각이 비상히 높아졌다는것을 말해주는것이였다. 어느덧 분조원들은 담당한 일군을 한집안사람처럼 여기였고 그의 말을 귀담아 듣게 되였다.

농장원들은 할 일이 많고 바쁜 군급기관 일군들이 어찌하여 이렇게 분조일에 몸을 잠그고 진심으로 도와주는지 깨닫게 되였다. 그러니 왜 그들이 분발하지 않겠는가.

일군들은 여기에 그친것이 아니라 분조장들이 농사대책안을 세우고 그 집행을 위한 사업을 강하게 내밀도록 이끌어주었다. 농사대책안에 대한 농장원들의 인식정형도 알아보고 깨우쳐주면서 토지관리와 영농공정별작업과제를 명백히 주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총화를 제때에 실속있게 하여 농장원들모두가 주인다운 자각과 높은 열의를 가지고 책임적으로 일해나가도록 하였다.

군책임일군들이 무슨 일을 하나 해도 분조를 강화하는데로 지향시킨것 역시 좋은 점이다.

중소농기구전시회를 례들어보자. 지난 시기 군에서는 중소농기구전시회를 농장별, 작업반별로 진행하군 하였다. 군일군들은 이런 관례를 깨고 분조관리제안에서 포전담당책임제를 실시하는데 맞게 세대별로 전시회를 조직하였다. 이렇게 하니 농장원들이 이전에 소홀히 여기던 호미, 낫과 같은 소농기구들도 그쯘하게 갖추어놓게 되였다. 전시회에서 우승한 세대들에 시상을 하였는데 그 실효가 컸다. 농장원들은 그후 중소농기구들을 언제나 정히 다루었으며 하루일이 끝나면 손질을 잘해서 보관하는것을 습성화하였다.

군일군들의 이런 적극적인 노력에 의하여 분조장들의 수준과 역할이 더욱 높아지고 분조의 전투력이 강해지니 농장원들의 열의가 고조되여 군에서는 지난해 알곡생산계획을 103%이상 수행하게 되였다.

과학기술은 자연을 이기는 만능열쇠

현대농업발전추세에 맞게 영농방법을 혁신하여야 알곡생산을 늘일수 있다. 이것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간곡한 유훈이며 우리 당의 일관한 방침이다.

성천군에서 지난해 백년래의 왕가물이 지속된 불리한 기상조건에서도 강냉이 정보당 수확고를 높일수 있은것은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모든 영농공정을 진행한 결과라고 누구나 말하고있다.

그 대표적실례가 강냉이영양단지모옮겨심기를 지난 시기보다 훨씬 앞당겨 가물피해를 막고 장마철대책도 세운것이다.

군책임일군들이 이 문제에 왼심을 쓰게 된것은 몇해전부터였다. 포전마다 유기질비료를 듬뿍 실어내여 지력을 높이고 비배관리도 깐지게 하였지만 수정률이 떨어져 강냉이소출은 더 오르지 못하고있었다. 그것은 강냉이개꼬리가 나와 수정하는 시기인 7월 하순이면 장마비가 많이 내리기때문이였다. 강냉이영양단지모를 옮겨심는 시기인 5월 상순—중순사이에는 가물이 들어 물주기를 하면서 힘들게 심는것 역시 안타까운 일이였다.

(이제 더는 미룰수 없다. 장마가 지고 왕가물이 들어도 강냉이수정률을 높일수 있는 방도를 무조건 찾아내야 한다.)

책임비서는 앉으나서나 이 생각뿐이였다. 그러던 어느날 향풍협동농장 청년작업반에 나갔던 그는 침수지역포전의 강냉이포기들에 하나같이 이삭이 달려 여물고있는것을 보고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 같은 날 물에 잠겼던 다른 포전들에서는 수정이 잘되지 않았는데 이 포전만은 례외로 된것이 참으로 이상한 현상이 아닐수 없었다.

순간 떠오르는것이 있었다.

그는 이 작업반의 농장원들을 만나 강냉이영양단지모를 옮겨심은 날자를 알아보았다. 4월 30일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그는 즉시 강냉이포기를 뿌리채 뽑아들고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기사장 로철진동무에게 사연을 이야기해주었다. 그러자 그는 이제는 풀렸다고, 장마비도 왕가물도 이길수 있게 되였다고 기뻐 어쩔줄을 몰라하였다.

그들은 이 사실로부터 이런 결론을 찾았다. 이삭이 나오는 시기와 장마가 지는 시기가 겹치지 않도록 강냉이씨붙임최적기를 정하면 옹근소출을 낼수 있다.

과녁이 명백하면 신심이 생기는 법이다. 일군들은 지난해에 모든 농장들에서 강냉이영양단지모옮겨심기를 종전보다 15~20일정도 앞당기도록 영농작전과 지휘를 짜고들었다. 알곡증산에 이바지할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나 해내야 한다는 각오안고 떨쳐나선 군일군들과 농장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어 군적인 강냉이영양단지모옮겨심기는 4월 말에 말끔히 결속되였다.

결과는 좋았다. 더우기 토양습기가 알맞춤한 4월 하순에 영양단지모를 옮겨심으니 5월 상순부터 들이닥친 가물피해도 막을수 있었다.

세벌, 네벌농사방법을 받아들인 사실을 놓고보자.

군에서는 2년전 모든 농장들에서 세벌, 네벌농사시험을 진행한 경험에 기초하여 지난해에 그 면적을 대폭 늘이였다. 그러자 일부 농장일군들은 단벌농사도 힘에 부치는데 세벌, 네벌농사까지 꽤 해내겠는가 하는 걱정부터 앞세웠다.

이때 책임일군들의 결심이 중요하였다.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위원장 장순금동무는 농장일군협의회에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부침땅의 리용률을 높이는것은 당의 농업정책입니다. 면적이 작은 우리 군에서 정보당 소출을 높이자면 두벌만이 아니라 세벌, 네벌농사를 해야 합니다. 우리 일군들이 앞장에 선다면 못해낼 일이 없습니다.》

그의 말은 일군들모두의 지지를 받았다. 책임일군들은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 농장들에 내려가 현실을 새롭게 보면서 혁신적인 방도를 세워나갔다.

관리위원장, 리당비서를 비롯한 일군들모두가 500평씩 포전을 담당하여 세벌, 네벌농사를 지었다. 그것도 농장원들이 담당한 포전보다 지력이 낮은 곳을 맡아나섰다. 신심을 얻은 농장원들도 담당포전에 수백평씩 세벌, 네벌농사를 받아들이였다.

이 군에서 받아들인 세벌, 네벌농사는 앞뒤그루로 감자와 강냉이를 재배하여 토지리용률을 훨씬 높이는 방법이다. 다시말하여 앞그루감자를 수확하고 그 뒤그루로 강냉이를, 앞그루강냉이를 수확하고는 그 뒤그루로 감자 또는 기름작물을 심는 방법이다. 농장들에서는 앞그루강냉이를 키가 작고 소출이 높은 중간품종으로, 뒤그루강냉이는 중간늦종으로 정하였다.

가을의 결실은 사람들의 큰 관심을 모았다. 특히 대봉, 장상협동농장들의 작황이 희한하였다. 네벌농사를 받아들인 포전에서 강냉이단작재배에 비하여 정보당 소출은 6t이상 증수된것이였다.

재배방법에 따라서도 수확고차이가 있었다. 두줄모아심기, 네줄모아심기, 겹재배에 의한 세벌, 네벌농사를 받아들인 포전들을 대비한 결과 네줄모아심기를 하였을 때 소출이 가장 높았다. 비결은 강냉이네줄모아심기에 의한 네벌농사를 할 때 뒤그루작물에 해비침조건, 통풍조건이 좋아지기때문이였다.

품을 들인것만큼 열매가 큰 법이다. 군에서는 지난해에 직류고전압종자처리, 강냉이품종섞음재배, 아미노산미량원소복합비료를 비롯한 여러가지 비료주기, 개꼬리뽑아주기와 이삭목찌르기, 오사리벗겨주기 등 앞선 영농방법과 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정보당 알곡소출을 부쩍 높이였다.

예로부터 돌이 많고 땅이 척박하여 알곡수확고에서 벌방을 따라앞설수 없는것으로 여겨왔던 성천사람들이였다. 그러나 이제는 사람마다 자연을 이기는 만능열쇠를 찾았다고 하면서 올해에는 벌방지대농사를 따라잡겠다고 벼르고있다.

현실은 이곳 일군들처럼 당에서 하라는대로 분조를 강화하고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모든 농사일을 해나간다면 어느 군에서나 알곡증수의 담보를 마련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황연옥

민족공동의 통일헌장, 통일대강을 따라야 한다

민족의 단합으로 북남관계의 력사를 새롭게 써나가자

올해는 조국해방 70돐이 되는 력사적인 해이다. 간악한 일제의 식민지통치기반에서 해방된 때로부터 70년이 되였지만 우리 민족은 아직도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실현하지 못하였으며 조국의 절반땅은 외세에 의하여 짓밟히고있다. 세기가 바뀌고 시대는 크게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주정신과 애국심이 강한 우리 민족이 아직도 외세에 의해 분렬의 고통을 겪고있는것이야말로 참을수 없는 수치이고 비극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조국통일을 위한 거족적인 투쟁을 힘차게 벌려 조국해방 70돐이 되는 올해를 어떻게 하나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놓는 일대 전환의 해로 빛내여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민족의 뜻과 힘을 합친다면 못해낼 일이 없습니다. 북과 남은 이미 통일의 길에서 7.4공동성명과 력사적인 6.15공동선언, 10.4선언과 같은 통일헌장, 통일대강을 마련하여 민족의 통일의지와 기개를 온 세상에 과시하였습니다.》

자주통일을 위한 올해의 투쟁에서 우리 겨레가 높이 들고 나가야 할 기치는 바로 7.4공동성명과 6.15공동선언, 10.4선언이다. 이 기치아래 온 겨레가 뭉치고 힘을 합쳐 투쟁한다면 올해에 얼마든지 조국통일위업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갈수 있다.

7.4공동성명과 6.15공동선언, 10.4선언은 조국통일을 위해 바치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거룩한 애국헌신의 로고와 불멸의 업적이 뜨겁게 어린 민족공동의 통일헌장, 통일대강이다. 민족의 영원한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장군님께서는 한없이 숭고한 민족애와 철석의 통일의지를 지니시고 7.4공동성명과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마련하시여 조국통일의 근본원칙과 방도들을 뚜렷이 명시해주시였다. 통일위업실현의 원칙과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고있는 7.4공동성명과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철저히 고수하고 리행해나가는것은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유일하게 정당한 길이다.

비범한 예지와 통찰력으로 겨레의 절절한 통일념원과 시대의 요구를 헤아리신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지난 세기 70년대에 민족분렬사상 처음으로 되는 북남고위급정치회담을 마련하시고 조국통일3대원칙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7.4공동성명을 발표하도록 하시였다.

조국통일3대원칙의 내용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다. 자주는 통일위업실현의 생명선이며 자주적대를 확고히 세워나가는 여기에 통일문제를 민족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해결할수 있는 길이 있다. 나라의 통일을 평화적으로 실현하는것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이며 요구이다. 민족대단결은 통일위업실현의 위력한 추동력이다. 조국통일3대원칙은 북과 남이 처음으로 공동의 합의를 통하여 이룩한 통일의 근본원칙으로서 전민족의 자주적의사와 리해관계를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있다. 조국통일3대원칙은 실천을 통하여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남김없이 발휘되였다. 조국통일3대원칙은 자주통일위업의 종국적승리를 확고히 담보해주는 초석으로서 정세가 변하고 환경이 달라져도 철저히 고수되여야 한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어버이수령님의 조국통일유훈관철을 필생의 사명으로 간직하시고 겨레에게 통일된 조국을 안겨주기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애국의지의 고귀한 결정체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두차례에 걸친 북남수뇌상봉을 마련하시고 조국통일3대원칙을 구현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채택하도록 하시여 자주통일위업실현의 밝은 전망을 열어놓으시였다.

주체89(2000)년에 채택된 6.15공동선언은 새 세기 조국통일의 리정표이다. 선언을 통해 북과 남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하며 북측의 낮은 단계의 련방제안과 남측의 련합제안이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나간다는것을 밝혔다. 또한 북남사이의 대화와 협력, 교류를 위한 방도를 천명하였다.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인 우리민족끼리리념은 자주와 단합의 리념이다. 여기에는 나라의 통일문제를 민족자체의 힘으로 해결해나가려는 투철한 자주정신과 한피줄을 이은 하나의 민족으로서 굳게 단결하려는 의지가 맥박치고있다. 우리 민족끼리리념은 북과 남, 해외 온 겨레의 심금을 틀어잡으며 북남관계발전과 조국통일운동의 전진을 힘있게 추동하였다.

6.15공동선언의 채택이후 북남관계는 대결과 불신의 낡은 시대를 밀어내며 활력있게 전진하였다. 북남사이의 대화와 협력, 해내외의 각계각층의 래왕과 접촉이 적극 진행되는 속에 민족의 혈맥과 지맥을 잇는 사변들이 련이어 창조되였다. 온 겨레는 6.15공동선언이야말로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조국통일을 앞당겨 이룩할수 있게 하는 필승의 기치이라는것을 절감하게 되였다. 6.15공동선언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나아간다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것은 진리이며 겨레의 확고부동한 신념이다.

주체96(2007)년에 채택된 10.4선언은 북남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고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앞길을 환히 밝혀준 6.15공동선언의 실천강령이다. 선언은 6.15공동선언의 정신을 재확인한데 기초하여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평화적통일의 유리한 환경을 보장하며 민족공동의 번영과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천명하였다. 10.4선언을 철저히 리행해야 북남사이의 불신과 적대관계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자주통일위업을 힘있게 전진시킬수 있다.

지난 시기 북남사이에 여러가지 합의가 이룩되였지만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처럼 북남관계문제에서 제기되는 당면한 현안은 물론 정치, 경제, 군사, 문화의 전반적인 분야에서 호상 신뢰를 다지고 대화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벌려나가기 위한 과업들을 포괄적으로 명시한것은 없었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야말로 그 무엇으로써도 대신할수 없는 민족최고의 통일대강이다.

북과 남, 해외의 각계층 동포들은 사상과 제도, 정견과 신앙의 차이를 뛰여넘어 력사적인 7.4공동성명과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옹호하고 관철하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야 한다.

민족공동의 통일헌장, 통일대강을 부정하며 말살하려는 반통일책동에 결정적타격을 안겨야 한다. 7.4공동성명과 6.15공동선언, 10.4선언의 리행을 거부하는것은 곧 민족의 단합과 자주통일을 반대하는 반역행위이다. 그의 리행이 북남관계개선과 평화, 통일의 길이라면 그에 역행하는것은 대결과 전쟁의 길이라는것은 력사가 가르쳐준 심각한 교훈이다.

남조선당국은 민족공동의 통일헌장, 통일대강들에 대한 립장을 바로 가지고 리행에 방해되는 도발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민족분렬의 비극이 70년간이나 지속되고있지만 민족의 자주통일은 력사의 어길수 없는 법칙이고 필연이다.

조국해방 일흔돐이 되는 올해에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자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는 온 겨레에게 필승의 신심과 용기를 백배해주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는 약동하는 조선민족의 힘이고 조국통일위업승리의 담보이다.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은 통일위업의 승리에 대한 확신을 안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거족적인 통일애국운동에 과감히 떨쳐나섬으로써 뜻깊은 올해를 기어이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여는 일대 전환의 해로 빛내여야 할것이다.

은 정 철

조국통일을 위한 강령적지침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력사적인 올해신년사는 조국통일을 절절히 바라는 온 겨레의 절대적인 지지와 환영을 받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신년사에서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필생의 념원이며 민족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기어이 이룩하고 이 땅우에 존엄높고 부흥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워야 한다고 하시면서 전체 조선민족이 **《조국해방 일흔돐이 되는 올해에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자!》** 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나갈데 대해 가르치시였다.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은 조선민족이 힘을 합칠 때만이 성취될수 있다.

온 겨레는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에 따라 민족의 대단합, 대단결을 이룩하여야 한다. 우리 민족의 뜻과 힘을 합친다면 못해낼 일이 없다. 북과 남은 이미 통일의 길에서 7.4공동성명과 력사적인 6.15공동선언, 10.4선언과 같은 통일헌장, 통일대강을 마련하여 민족의 통일의지와 기개를 온 세상에 과시하였다.

조국통일운동에서 견지해야 할 원칙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3대원칙과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이다. 조국통일의 대강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진수인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은 통일에 대한 겨레의 지향과 요구를 반영하고있다.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이 있었기에 6.15통일시대에 외세의 간섭을 물리치고 조국통일을 자주적으로 실현하려는 겨레의 굳센 의지가 힘있게 과시되였다.

우리민족끼리는 겨레에게 민족자주정신을 심어주고 통일운동을 북과 남, 해외를 망라하는 전민족적운동으로 확대강화할수 있게 하였다.

6.15통일시대에 북과 남, 해외의 각계층 동포들의 래왕과 접촉으로 화해와 단합이 촉진되고 조국통일운동이 거족적인 애국운동으로 벌어졌다.

온 겨레가 제2의 6.15통일시대를 반드시 안아와야 한다.

우리 민족을 둘로 갈라놓은 외세가 조선의 통일을 달가와할수는 없다.

사대로 망국을 강요당했던 우리 민족의 과거사와 오늘 외세에 의해 동족상쟁의 내전에 빠진 나라들의 비극이 이것을 증명해주고있다.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을 옹호고수하고 실현하면 통일과 평화번영도 이룩할수 있지만 버리면 불행과 전쟁의 참화밖에 가져올것이 없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조국통일의 기본리념인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은 절대로 변할수 없다. 전체 조선민족은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에 따라 민족의 대단합, 대단결로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거족적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대결정책전환은 북남관계 새 력사의 출발점

올해에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갈데 대한 절세위인의 력사적인 호소는 70년에 걸치는 민족분렬의 비극에 종지부를 찍고 북남관계개선과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려는 념원과 의지로 가슴 불태우는 온 겨레를 끝없이 격동시키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북과 남은 더이상 무의미한 언쟁과 별치않은 문제로 시간과 정력을 헛되이 하지 말아야 하며 북남관계의 력사를 새롭게 써나가야 합니다.》

우리 민족이 올해에 북남관계의 비정상적인 사태를 바로잡고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는것은 중대한 민족사적과제이다. 그 실현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것이 바로 남조선당국이 구태의연한 대결정책을 대담하게 전환하는것이다.

대결정책으로써는 북남관계문제를 풀수 없으며 대화와 협상, 교류와 협력도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없다. 그것이 빚어낼것이 종당에는 전쟁뿐이라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동족사이의 불신과 갈등만을 빚어내고 북남관계를 파국에로 몰아넣는 대결정책이야말로 한시바삐 전환되여야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남조선당국은 동족을 적대시하고 해치기 위한 대결정책에 매달리며 시대의 요구와 겨레의 지향에 역행하고있다.

남조선당국이 정초부터 련이어 요란하게 벌려놓은 전쟁불장난소동들과 인간쓰레기들의 도발적인 삐라살포소동, 광란적인 《종북》소동도 그것을 말해준다.

대화와 대결은 량립될수 없다. 대화를 운운하면서도 그에 제동을 거는 대결소동을 계속 벌린다면 북남관계는 언제 가도 파국상태에서 헤여날수 없다.

반공화국대결정책이 북남사이의 정치군사적대결을 격화시키고 조선반도에서 핵전쟁발발의 위험을 증대시키는 주되는 요인이라는것은 력사가 실증해주고있다. 남조선에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반대하는 보수세력이 집권한 이후 동족의 사상과 제도를 적대시하며 북남사이의 정치군사적대결상태를 격화시키는 반통일망동이 강화됨으로써 민족의 화해와 단합의 길에서 마련된 사변적성과들이 모두 짓밟히고 나중에는 쌍방사이에 불과 불이 오가는 최악의 사태까지 초래되였다.

동족대결정책이 북남관계에 얼마나 엄중한 후과를 미치는가를 현실을 통해 뼈저리게 체험하였기에 남조선인민들은 그것이 되풀이되는것을 결코 바라지 않으며 당국이 대결정책의 전환으로 북남관계개선에 시급히 나설것을 강력히 요구하고있는것이다.

동족에 대한 신뢰에 앞서 적대와 불신의 감정만 내세우면서 대결정책을 고집한다면 대화와 협상이 이루어질수 없으며 아무리 좋은 대화분위기가 마련된다 하여도 그것은 일시적인것에 지나지 않게 될것이다. 결국 대결의 악순환만 되풀이될뿐이다. 시대의 흐름, 력사와 민족의 한결같은 요구인 북남관계개선을 위해 불신과 대결을 조장, 격화시키는 대결정책을 대담하게 철회하여야 한다.

대결정책의 전환은 북과 남이 싸우지 말고 힘을 합쳐 북남관계의 력사를 새롭게 써나가기 위한 출발점으로 된다.

남조선당국이 대결정책을 전환하지 않고 아무리 《진정성》을 열성껏 외워대도 그것은 내외여론에 대한 기만으로 될것이다.

대결정책의 지속으로 무의미한 언쟁을 일삼고 민족의 귀중한 재부와 시간, 정력을 헛되이 하는것을 우리 민족은 허용하지 않는다.

조국해방 70돐이자 민족분렬 70년이 되는 올해에 북과 남이 대결상태를 끝장내고 서로의 관계에서 대전환, 대변혁을 가져올것을 온 겨레는 한결같이 바라고있다.

누구도 조국통일에 대한 겨레의 간절한 념원과 시대의 부름을 외면해서는 안되며 그에 엇서나가는 매국반역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이제는 불신과 대결을 낳는 낡은 대결정책에서 벗어날 때가 되였다.

본사기자 장 윤 남

북남관계개선과 자주통일을 지향하며

뜻깊은 올해에 우리민족끼리리념밑에 굳게 단결하여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힘차게 열어나가려는 남녘겨레의 열망이 강렬해지고있다. 남조선의 각계 단체들은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인 7.4공동성명과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리행하여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조국통일을 앞당길 의지를 안고 떨쳐나서고있다.

1월 1일 부산의 어느 한 지역에서는 2015년 해맞이모임이 진행되였다. 새해의 아침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참가자들은 민족분렬의 비극의 70년력사를 끝장내고 조국통일을 기어이 이룩할 념願으로 가슴 불태우면서 통일을 목청껏 불렀다. 한 대학생은 날씨는 몹시 추웠지만 새해의 떠오르는 첫 해를 바라보며 통일을 소원하는 기쁨으로 하여 추운줄 몰랐다고 격정에 넘쳐 말하였다. 모임에서는 올해의 조국통일투쟁의지를 밝힌 기자회견문도 랑독되였다.

한편 1월 7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전본부는 남조선당국에 북남관계개선을 위해 나설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지였다. 기자회견에서는 북남관계개선을 위해 북남사이의 대화가 선행되여야 하며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령역에서의 교류협력을 통해 끊어진 민족적뉴대와 혈맥을 이어나가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울려나왔다. 한 발언자는 력사적으로 볼 때 미국은 북과 남의 화해와 협력에 방해만 놀았다고 하면서 당국은 외세에 의존할것이 아니라 동족과 손을 잡고 북남관계개선에 힘을 넣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같은 날 오전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미국이 북남대화에 찬물을 끼얹는 책동을 중단할것을 요구하는 모임을 가지였다. 참가자들은 미국이 아무런 증거도 없이 《쏘니픽쳐스》영화제작보급사에 대한 해킹공격의 배후로 북을 지목하면서 제재놀음에 매달리는것은 비렬하기 그지없는 처사라고 강력히 비난하면서 그것을 반대하여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속에 남조선의 인터네트신문 《민족일보》는 통합진보당을 강제해산시키는 등 진보민주세력을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당국을 규탄하면서 진실로 통일을 하려면 진보민주세력을 《종북》으로 몰아 탄압하는 《마녀사냥》을 즉시 걷어치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설을 실었다. 신문은 사설에서 북남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당국의 유일한 출로는 동족과 손잡는 길뿐이라고 강조하였다.

조국해방 70돐이 되는 올해에 어떻게 하나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민족적화해와 단합으로 자주통일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가려는것은 북과 남, 해외 온 겨레의 막을수 없는 지향과 의지로 되고있다.

우리 민족끼리 뜻과 힘을 합치면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반드시 열어놓을수 있다. 남조선인민들은 반통일세력의 도전과 방해책동을 물리치며 6.15의 기치밑에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거족적인 애국투쟁에 적극 떨쳐나서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진보활동가들에 대한 탄압을 비난

남조선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련대가 6일 진보활동가들을 탄압하는 남조선당국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당국의 《종북》소동과 공안탄압이 도를 넘어서고있다고 밝혔다.

검찰과 경찰이 재미동포 신은미를 강제추방시키려 하고있으며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 황선에 대해서는 구속령장청구를 검토한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였다고 지적하였다.

집권자는 각계각층에서 나오는 통일에 대한 목소리를 묵살하고 오로지 자기주도의 《통일》론의를 이끌어가려고 하고있다고 하면서 성명은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진심으로 남북의 화해와 통일을 념원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발을 못 붙이도록 하겠다는것이다. 진정한 통일은 몇몇이 하는것이 아니라 온 겨레가 함께 만들어가는것이다.

각계각층이 통일을 론할 때 진정한 통일이 이룩된다.

경찰과 검찰은 신은미와 황선에 대한 탄압을 철회하라.

【조선중앙통신】

당이 맡겨준 혁명초소를 성실히 지켜갈 숭고한 자각을 안고

충복된 마음 소중히 간직하고

강동군가내축산관리위원회 위원장 홍정애동무와 종업원들

맡겨진 직무를 더없는 영예로 무겁게 받아안는 사람들만이 무슨 일이든 책임적으로 수행하며 그로 하여 인민의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되는것이다. 강동군가내축산관리위원회 위원장 홍정애동무와 종업원들의 사업과 생활이 그것을 다시한번 실증해주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사회에서는 인민생활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애쓰는 사람이 인민의 충복이며 애국자입니다.》

당의 신임에 의하여 홍정애동무가 가내축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새 직무를 맡은것은 몇해전이였다. 현지에 도착한 그는 종업원들을 만나 관리위원회의 실태부터 료해하였다.

관리위원회의 종업원이라야 자기를 포함하여 몇명 안되였다. 관리위원회아래 가내축산작업반들은 지구별로 멀리 떨어져있었다. 집짐승우리들도 생각보다는 씨원치 못하였다.

홍정애동무는 생각이 많았다. 오래동안 군제약공장과 의약품공급소에서 책임일군으로 사업하던 자기가 집짐승을 기르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었다.

밤이 깊어 집으로 돌아오는 그의 귀전에 어버이장군님께서는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애쓰는 사람이 인민의 충복이며 애국자라고 교시하시였다고 하던 군당책임일군의 말이 떠날줄 몰랐다.

(내 높은 사업실적으로 당조직의 믿음에 기어이 보답하리라.)

그는 아래가내축산작업반원들에게 요구하기에 앞서 관리위원회가 집짐승기르기에서 모범을 보이리라 결심하였다. 당세포비서를 비롯한 종업원들이 그의 결심에 적극 호응해나섰다.

2층으로 된 집짐승우리건설이 시작되였다. 홍정애동무는 세멘트와 골재, 철근을 비롯한 자재를 마련하기 위하여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였다. 그리고 종업원들과 함께 건설공사를 내밀었다. 회계원 한일화, 로동자들인 김경철, 리정근동무를 비롯한 몇명 안되는 종업원들이 힘을 합쳐 블로크를 찍어 벽체를 쌓고 지붕을 씌우며 낮과 밤이 따로 없이 일을 하였다.

애쓴 보람이 있었다.

불과 몇달동안에 번듯하게 건설된 온돌까지 척 놓은 100여㎡의 밀폐식우리를 돌아보는 사람마다 겨울철에도 새끼돼지생산은 문제없겠다고 이야기하였다.

하지만 이들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다. 평양시는 물론 집짐승기르기를 잘하는 전국의 여러 단위들을 찾아가 좋은 경험도 배우고 우량품종의 집짐승종자들도 구해왔다. 이렇게 이들은 10여마리의 종자돼지를 구해다가 그 마리수를 수십마리로 늘이며 새끼돼지생산과 고기생산을 늘이였다. 그리고 부업지에 여러가지 작물을 심어 먹이문제를 자체로 풀며 풀판을 조성하고 염소마리수도 늘여나갔다. 밤을 새며 집짐승을 기르는 일은 헐치않았지만 그만큼 보람은 컸다.

홍정애동무는 보여주기사업을 진행하고 경험토론회, 기술학습 등을 의의있게 조직하며 아래가내축산작업반들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는 사업에 힘을 넣었다. 고기생산은 나날이 늘어났다.

그에 맞게 그는 생산된 고기를 군안의 전쟁로병들과 영예군인들의 가정들에 공급하기 위한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였다. 그리고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장과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장을 비롯하여 여러 건설장들에 나가있는 군안의 돌격대원들에게도 보내주었다. 그에 대한 반영이 좋았다. 홍정애동무와 종업원들은 주민들과 돌격대원들이 기뻐하는 모습에서 인민의 충복으로서의 긍지와 보람을 가슴뿌듯이 느끼였다.

홍정애동무는 다시금 결심하였다.

(목표를 더 높이 세우자.)

그는 종업원들과 함께 올해에는 자체로 먹이를 보장하며 돼지, 염소마리수를 배로 늘이고 많은 오리와 닭, 게사니도 기를것을 계획하였다. 헐한 일이 아니다. 하지만 군의 일군들은 그들스스로가 높이 세운 그 계획이 빛나게 수행되리라는것을 믿어의심치 않고있다. 인민의 참된 충복으로 살려는 그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있기때문이다.

본사기자 박 상 훈

야외학습터와 교육자의 모습

강계시 연풍소학교 교원들

운동장의 한옆에 펼쳐진 아담한 학습터가 학교구내로 들어서는 우리의 눈길을 끌었다.

살구나무, 배나무를 비롯한 갖가지 과일나무들과 키낮은 떨기나무들, 천연수림속의 이깔나무를 다듬어 세워놓은듯한 돌기둥들과 아름드리나무를 형상한 돌의자며 책상들, 소학교학생들의 심리에 맞게 계시한 여러가지 교양판들과 각종 동물조각들, 갖가지 약초들과 산열매나무들로 이루어진 교재림,

이것이 바로 얼마전 강계시 연풍소학교를 찾았던 우리가 본 야외학습터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교원들은 조국의 미래를 가꾸어나가는데서 뿌리가 되고 밑거름이 되여야 합니다.》

그 하나하나가 다 산골지방의 이채로운 풍경을 자아내는것이여서 저도모르게 감탄이 울려나오는것이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것은 학교자체의 힘으로 400여㎡나 되는 이런 훌륭한 학습터와 교재림을 꾸렸다는것이다.

《찾는 사람들마다 녀교원들이 대부분인 우리 학교에서 제손으로 이렇게 꾸렸다는게 정말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하군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본듯 부교장 리정순동무가 하는 말이였다. 설계로부터 시작하여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해결하느라 이곳 교원들이 걸은 밤길과 지샌 밤이 그 얼마였던가.

낮에는 수업을 보장하고 또 교수안작성도 해야 하는 그들이였던것이다.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자체로 보장하기 위하여 밤늦도록 장자강가에서 모래를 져나르고 세멘트차를 기다리느라 밤을 밝히기도 했다. 때로는 전투현장에서 쪽잠을 자기도 하였다.

터갈라진 손에 붕대를 감고 그 손으로 백묵을 쥐기 안타까와하던 처녀교원이며 피로는 겹쌓였지만 언제나 변함없이 학생들의 과외학습지도에도 불같은 열정을 바쳐가던 그 모습들이 눈에 선히 안겨왔다.

새맛이 나게 번듯하게 세워놓은 학교울타리며 수십마리의 우량종토끼들이 뛰여노는 토끼우리, 동물원의 조류사를 방불케 하는 비둘기집 등 어제와 오늘이 뚜렷한 대조를 이루며 변모된 학교의 모습에서 우리는 후대들을 위하여 바치는 이곳 교원들의 깨끗한 량심과 헌신의 자욱을 다시금 새겨안을수 있었다.

우리는 운동장에서 마음껏 뛰여노는 학생들의 밝은 모습에서 더욱 훌륭하게 변모될 학교의 래일과 함께 조국의 미래를 자래우는 밑거름이 되여 한생을 바쳐가는 우리 시대 참된 교육자들의 모습을 보았다.

본사기자

축하해주고있다. 기업소에서 전력생산의 동음을 높이 울린가는 혁신자들을 — 평양화력발전련합 본사기자 리명남 찍음

의료일군의 본분을 다하며

안악군인민병원 의료일군들이 인민들에게 사회주의보건제도의 혜택이 더 잘 미치도록 할데 대한 당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치료예방사업을 잘하고있다.

의료일군들은 군안의 전쟁로병들과 공로자들, 후방가족들을 비롯한 주민들에 대한 건강검진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있으며 그에 기초하여 치료사업을 짜고들고있다.

얼마전에 이곳 병원으로 구급환자가 들어왔을 때에도 의료일군들은 저저마다 자기들의 피를 넣어줌으로써 환자의 소생에 큰 기여를 하였다.

의료봉사는 단순히 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정치사업이라고 하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교시를 가슴속에 새기며 이들은 주민들속에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을 깊이 인식시키기 위한 교양사업도 방법론있게 진행하고있다.

병원에서만이 아니라 이곳 의료일군들은 날씨조건에 맞게 여러 협동농장들에 나가 위생선전을 비롯한 현장의료봉사활동도 활발히 벌리고있다.

로농통신원 렴 창 성

애국의 한마음안고

천마광산의 면모가 몰라보게 달라졌다.

멋들어지게 뻗어간 로라스케트장이며 선군시대 맛이 나게 변모된 조악갱…

어디를 가보아도 애국의 더운 땀을 아낌없이 바쳐온 광산사람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엿볼수 있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꽃피우기 위한 로라스케트장건설에 모두가 떨쳐나서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었다.

일군들부터가 앞채를 메고 이 신작칙의 모범을 보여주었고 광부들도 교대작업이 끝나면 누구라없이 모두 건설장으로 달려나왔다. 결과 짧은 기간에 도시부럽지 않은 로라스케트장을 훌륭히 꾸려놓게 되였다.

사회주의문명국건설로 들끓는 조국의 벅찬 숨결에 발맞추어 자기 고장을 더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바쳐가는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애국의 열정과 더불어 광산의 면모는 나날이 더욱 변모될것이다.

로농통신원 강 성 희

최후승리를 확신하며 전진하는 조선인민

백승의 선군혁명령도로 미제의 고립압살책동을 짓부셔버리시고 우리 조국의 존엄과 위용을 온 누리에 더욱 빛내이고 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대한 국제사회계의 흠모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가고있다.

아시아지역주체사상연구소리사장 하리쉬 굽따는 자기의 심정을 다음과 같이 터치였다.

《김정은각하는 뛰여난 정치실력과 고매한 덕망을 지니신분이시다.

그이께서는 희세의 위인으로 만민의 끝없는 흠모를 받고계신다.

조선이 사회주의보루로 빛을 뿌리고있는것은 김정은각하의 령도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진보적인류는 조선식사회주의를 열렬히 동경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련대성 브라질위원회는 인터네트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조선은 령토나 인구수에 있어서 그리 크지 않은 나라이다.

하지만 그 누구도 감히 범접할수 없는 무진막강한 힘을 가지고있다.

조선의 힘은 출중한 령도자를 모신데 있다.

인민에 대한 령도자의 열화같은 사랑은 조선의 첫째가는 국력인 일심단결의 위력을 최상의 경지에서 떨치게 한다.

김일성주석께서 마련해주시고 김정일령도자께서 공고발전시키신 조선의 일심단결은 오늘 김정은최고령도자에 의하여 더욱 높은 경지에 이르고있다.》

로므니아사회주의당 최고리사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김정은각하께서는 천출명장으로서의 비범한 천품과 자질, 풍모를 최상의 높이에서 가장 완벽하게 체현하시고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령도자의 선군혁명사상을 그대로 계승하시였다.

천재적인 군사적지략과 령군술로 조선인민군을 백방으로 강화하신 그이께서는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시고 사회주의조선의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하시였을뿐아니라 조선인민의 강성국가건설을 현명하게 령도하고계신다.》

제국주의련합세력의 군사적위협과 경제제재속에서도 미국과 당당히 맞서나가는 조선을 세계는 경탄속에 바라보고있다고 하면서 네팔공산당(마오바디)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은 《김정은원수께서 계시여 자기의 존엄을 귀중히 여기며 자주권을 당당히 행사해나가는 조선은 보다 큰 진보와 번영을 이룩할것이다.》라고 확언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와 신뢰의 정을 담아 유리공예 《빛세기측정기구》를 선물로 올린 조선과의 친선협회 이딸리아지부의 한 성원은 자기의 진정을 이렇게 토로하였다.

《조선은 비록 크지 않은 나라이지만 세계정치의 중심에서 위대한 힘으로 세계를 움직이고있다. 해빛은 이 측정기구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다. 다시말하면 세계의 태양은 바로 김정은동지이시다. 위대한 태양을 모신 조선이 세계를 주도하며 주체의 길로 확신성있게 나아간다고 생각하는 나의 심정이 그대로 이 선물에 반영되여있다.》

외국의 벗들이 칭송하는바와 같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자주로 존엄높고 선군으로 위용떨치는 백두산대국의 힘이시고 승리의 상징이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계시여 우리는 그 어떤 대적이 달려들어도 두려움없이 영웅조선의 인민답게 신심드높이 강성국가건설에 떨쳐나서고있다.

스위스조선위원회 위원장은 조선인민은 미제를 반대하는 싸움에서 승리한 첫 인민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강조하였다.

《김일성대원수님의 령도밑에 영웅적조선인민군과 조선인민은 패배를 모른다고 호언장담하던 미제를 타승하였다. 오늘 조선은 그 어떤 원쑤도 감히 범접못하는 핵보유국으로, 조선인민군은 무적의 군대로 강화발전되였다. 김정은최고사령관을 높이 모신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미제가 또다시 전쟁을 도발한다면 침략자들을 모조리 쓸어버리고 나라의 통일을 이룩할것이다.》

민주꽁고공산당 총비서는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동지의 숭고한 뜻을 그대로 이으신 김정은원수께서는 인민에 대한 끝없는 복무정신을 지니시고 전설같은 인민사랑의 정치를 펴나가신다.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그이를 절대적으로 지지하고있다. 령도자와 인민이 혼연일체를 이룬 조선의 힘을 당할자는 이 세상에 없다.》고 격찬하였다.

세계민주청년련맹 총리사회회의에서는 존경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펼치시는 숭고한 인민사랑의 정치, 민족중시의 정치에 의하여 조선에서는 강성국가건설에서 세인을 놀래우는 눈부신 기적과 혁신이 창조되고 인민의 꿈과 리상이 현실로 펼쳐지고있다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러면서 조선의 이러한 현실은 자주적이며 평화로운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세계 진보적인민들에게 힘과 용기를 안겨주고있으며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자기가 선택한 사회주의길을 따라 최후승리를 확신하며 힘차게 나아가는 조선인민의 전진은 그 무엇으로도 가로막지 못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인상에 매혹된 전인디아진보전선 중앙위원회 총비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심으로써 인민군대는 무적필승의 대오로 더욱 튼튼히 다져지고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은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수호하고있다, 조선의 정치, 경제, 군사 등 모든 분야에서 이룩되고있는 빛나는 성과들은 자주를 지향하는 세계 진보적인민들에게 커다란 희망과 고무를 안겨주고있다, 강철의 담력과 배짱, 탁월한 령군술을 지니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최고령도자로 모시고있는 조선인민은 언제나 승리할것이다라고 자기의 심정을 피력하였다.

그렇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앞길에는 언제나 밝은 미래와 승리만이 펼쳐지게 될것이다.

하기에 세상사람들은 확신에 넘쳐 말하고있다. 승리는 조선의것이라고.

김 국 철

신심과 락관을 안겨주는 고무적기치

여러 나라 인사들 담화 발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지지하여 메히꼬인민사회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헤쑤스 안또니오 까를로스 에르난데스가 3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신년사는 가장 인간적이고 평화적이며 합리적인 론리로 일관된 위대한 정치강령이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신년사에서 지난해는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최후의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조선의 불패의 위력을 떨친 빛나는 승리의 해였다고 총화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올해를 조선해방 일흔돐과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돐이 되는 매우 뜻깊은 해로 규정하시고 조선인민앞에 나서는 전투적과업과 방도를 밝혀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백두의 혁명정신과 기상으로 적대세력들의 도전과 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사회주의수호전과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역에서 승리의 포성을 높이 울릴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또한 《조국해방 일흔돐이 되는 올해에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자!》라는 투쟁구호를 들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필생의 념원이며 민족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기어이 이룩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메히꼬인민사회당은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이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더욱 빛내이며 강성국가건설과 나라의 통일위업수행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리라고 확신한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긴장을 완화하며 평화적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보낸다.

*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신년사를 지지하여 딴마, 인도네시아인사가 5일과 8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딴마련맹련대성발전당 양곤지역위원회 비서대리 타 윈은 조선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김정은각하께서 하신 신년사를 커다란 기쁨속에 접하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김정은각하의 신년사는 조선의 당과 정부의 정책을 반영하고있다.

신년사에서 제시된 과업들은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각하의 념원대로 강성국가를 건설하며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서 강령적지침으로 된다.

김정은각하께서는 신년사에서 북과 남이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절대시하면서 체제대결을 추구하지 말며 조선민족끼리리념에 따라 민족의 대단합, 대단결을 이룩하여 조선통일문제를 민족공동의 리익에 맞게 순조롭게 풀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이것은 조선반도의 현실과 전체 조선민족의 의사를 반영한 정당한 방안이다.

김정은각하께서는 또한 조선의 사회주의제도를 압살하려는 적들의 책동이 계속되는 한 선군정치와 병진로선을 변함없이 견지할데 대하여 지적하시였다.

이것은 적들의 항시적인 핵위협과 전쟁책동에 강경대응하려는 조선의 당과 인민의 확고한 립장을 담고있다.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받는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이 강성국가건설과 조국통일위업실현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리라고 확신한다.

김정은동지의 신년사를 관철하기 위해 떨쳐나선 조선인민의 투쟁에 굳은 지지와 련대성을 보낸다.

인도네시아 밀레니아 아르마다 엑스쁘레스회사 사장 한뚱위리안또는 김정은각하께서 하신 신년사는 전체 조선민족에게 원대한 포부와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과 락관을 안겨주는 고무적기치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김정은각하께서는 신년사에서 올해의 휘황한 투쟁목표와 그 관철을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시였으며 전체 조선인민이 조선해방 70돐과 조선로동당창건 70돐을 혁명적대경사로 빛내이기 위한 총공격전에 떨쳐나설것을 호소하시였다.

특히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령도자의 필생의 념원인 조선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방도를 밝혀주시였다.

김정은각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방안은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조선반도에서 평화를 보장하며 조선의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가장 정당하고 현실적인 통일대강이라고 확신하면서 이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우리 공화국정부의 원칙적립장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책동이 새해벽두부터 더욱 악랄해지는것과 관련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정책국 성명과 외무성 대변인대답을 6일부터 8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알제리인터네트신문 《알 빌라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부대를 현지시찰하시는 사진문헌을 모시고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국방위원회 정책국은 성명에서 미국이 두차례의 세계대전을 비롯하여 크고작은 침략전쟁에 가담하면서도 아직까지 제땅에서 단 한번의 총포세례도 받아보지 못한 나라이라고 하면서 당하지 않겠으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스스로 철회하여야 한다고 경고하였다.

성명은 《대조선적대시정책을 하루빨리 철회하는것이 가장 현명한 처사로 될것이다. 대세를 무시하고 상대를 오판하며 자기를 과신하는 결과는 참으로 비참하다는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상대를 모르고 자기의 처지도 모르면 기필코 망하게 되여있다. 우리는 미국의 정책전환을 주시해볼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미국신문 《뉴욕 타임스》는 《북조선 미국에 〈제재〉와 관련하여 전쟁참화를 입게 될것이라고 경고》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조선은 미국이 《제재》조치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제땅에서 총포세례를 받게 될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조선국방위원회 정책국은 성명에서 미국이 천만부당하기 그지없는 모든 대조선《제재》조치부터 전면적으로 철회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조선의 이 립장은 지금까지 미국이 고안해낸 모든 대조선《제재》조치가 조선에 대한 미국의 체질화된 적대감과 골수에 밴 거부감, 그에 따른 적대시정책에 그 바탕을 두고있기때문이다, 그것은 또한 당치 않은 구실과 조건을 전제로 꾸며낸 《제재》이기때문이다고 주장하였다.

프랑스신문 《피가로》도 우와 같은 내용을 보도하였다.

몽골의 몬짜메통신과 뻬루조선친선문화협회 인터네트홈페지는 미국이 자국영화제작보급사에 대한 싸이버공격사건을 걸고 대조선《추가제재》를 발표한것과 관련하여 우리 나라 외무성 대변인이 조선중앙통신사기자의 질문에 한 대답을 전하였다.

전적인 지지를 표시한다

영국단체들 공동성명 발표

영국선군정치연구협회, 영국주체사상연구소조, 영국조선친선협회가 우리 나라에 대한 미국의 《대통령행정명령》발표를 규탄하여 4일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미국이 이미 가혹한 제재를 받고있는 조선에 《추가제재》를 가할데 대한 《대통령행정명령》이라는것을 발표하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미국이 자국의 영화제작보급사에 대한 싸이버공격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조선의 공동조사요구를 외면하고있는것은 그 무엇을 숨기려 하거나 진실이 드러나는것을 두려워하고있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미국이 이 사건의 책임을 조선에 넘겨씌우려고 벌린 모든 히스테리적이며 비론리적인 행동들은 랭전시기를 방불케 하고있다.

조선의 존엄과 사회주의제도를 모독하는 영화를 제작한 미제국주의자들이야말로 진짜 범죄자들이며 조선인민의 철천지원쑤이다.

우리는 미제국주의자들의 더욱 악랄해지는 도발책동에 대처하여 선군의 기치를 변함없이 높이 들고나아가는 사회주의조선의 원칙적립장에 전적인 지지를 표시한다.

【조선중앙통신】

로씨야대통령 문화발전기금을 창설할것을 주장

로씨야대통령 울라지미르 뿌찐이 최근 로씨야문화발전기금을 창설할것을 주장하였다.

그는 문화정책의 기본원리실현에 대한 자금을 보장하자면 문화발전기금을 창설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문화정책은 교육, 교양, 정보공간형성, 민족간관계, 예술, 문학 등 많은 분야를 포괄하고있으며 그중 많은것이 호상 긴밀히 련관되여있다고 하면서 그는 때문에 문화부문을 조정하는 지도기관을 창설하는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번영하는 나라를 일떠세울것을 호소

남아프리카대통령 쟈코브 게들레이홀레키사 주마가 신년연설에서 번영하는 나라를 일떠세울것을 호소하였다.

그는 2015년을 단결과 협력의 해로 빛내이며 헌법과 국가발전계획에 밝혀진대로 남아프리카를 부강한 나라로 전변시켜야 한다고 말하였다.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고 그들에게 경제활동에 참가할 기회를 마련해주는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그는 정부가 사회적불평등과 실업이 없는 발전된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미국의 도발적인 반공화국위협책동

미국이 조선반도주변지역에 침략무력을 끌어들이면서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무분별한 군사적위협책동에 발광적으로 매여달리고있다.

7일 미국방성은 위스콘신주의 공군기지로부터 일본 오끼나와에 있는 미공군기지에로 전투기들을 이동배치할데 대한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12대의 《F—16》전투기와 함께 약 250명의 병력이 일본의 가데나기지에 배치된다고 한다.

미국방성관계자는 이것은 조선을 포함하여 미국의 《적대국》들이 항상 불안해하도록 하기 위한것이라고 공공연히 뇌까렸다.

미국의 이러한 군사적위협책동은 전쟁광신자들의 단말마적인 추태로서 지역정세를 악화시키고있다.

경영형편 악화

미국과 영국에서 경제위기의 후과로 봉사부문 기업체들의 경영형편이 악화되고있다.

6일 미국의 한 경제단체는 지난해 12월에 이 부문 기업체들의 경영형편을 보여주는 지수가 그 전달보다 3.1점 떨어졌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에 영국에서는 그 지수가 2.8점 감소되였다 한다.

【조선중앙통신】

국방력강화문제에 대해 언급

꼬뜨디봐르대통령 알라싼 우아따라가 5일 한 연설에서 국방력강화문제에 대해 언급하였다.

지난해는 꼬뜨디봐르에 있어서 무력강화의 해였다고 하면서 그는 해군과 공군무력건설에서 많은 성과가 이룩된데 대해 높이 평가하였다.

그는 정부가 올해에도 군인들의 생활조건을 개선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며 무장장비개선과 군사기지들을 보수정비하는 사업을 계속 추진시켜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청년실업위기

유럽동맹 성원국들에서 청년실업문제가 의연 심각하게 제기되고있다.

7일 동맹통계국은 지난해 11월에 성원국들에서 25살미만 청년실업자수가 510만명에 달하였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의 유대인정착촌확장책동에 항거하는 팔레스티나인

중동지역에서 폭풍과 폭설피해

중동지역에서 7일 겨울철폭풍이 들이닥치면서 많은 눈이 내려 피해를 입었다.

레바논에서 2명이 목숨을 잃고 수천명이 추위에 떨지 않으면 안되였다.

또한 이 나라의 해안지대에서는 폭풍을 동반한 비와 우박이 내렸고 산간지대와 중부베카계곡에서는 많은 눈이 내려 가스공급소와 은행, 학교, 상점들이 문을 닫았다.

또한 골란고원과 그 주변지역에도 눈이 내렸다고 한다.

팔레스티나정부는 이와 관련하여 요르단강서안지역과 가자지대에 비상사태를 선포하였다 한다.

【조선중앙통신】

자멸의 구렁텅이에 빠져드는 미국의 실상

얼마전 미국의 인터네트신문 《글로벌 포스트》는 미국인구가 세계인구의 5%밖에 안되지만 수감자수에서는 세계총수감자수의 25%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오늘 미국의 감옥들에서는 중세기적인 고문을 비롯한 각종 인권유린행위들이 날로 더욱 우심해지고있다.

자국인민들의 정치적자유와 권리는 물론 사회경제적 및 문화적권리들을 무참히 짓밟으면서 인권탄압의 도수를 더욱 높이고있다. 근로자들이 로동의 권리와 초보적인 생존권마저 보장받지 못하여 거리를 방황하고있다.

극단한 개인리기주의와 인간증오사상이 사회에 만연되여 인민들이 항시적인 불안과 공포속에서 살며 살인, 강도, 강간, 매춘, 인종차별, 이주민차별과 학대 등 각종 범죄가 판을 치고있는것이 오늘의 미국의 현실이라고 외신들이 전하고있는것도 우연하지 않다.

미국은 밖에서도 인권유린행위를 서슴없이 감행하고있다.

미국은 세계 많은 곳에 도청시설을 꾸려놓고 국가안전보장국을 비롯한 정보기관들을 동원하여 다른 나라들의 대통령들을 비롯한 고위인물들은 물론 일반주민들의 전화통화내용까지 도청하고있다.

미국은 《인권문제》를 구실로 자주적인 길로 나가는 나라들의 내정에 간섭하여 그 나라들에서 국가정권을 뒤집어엎는 행위도 로골적으로 감행하고있다.

더우기 엄중한것은 미국이 《인권문제》를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에까지 끌고가 복잡성을 조성하고있는것이다. 해마다 그 무슨 《인권보고서》라는것을 발표하고 주권국가를 반대하는 《제재결의》까지 채택하는 놀음을 벌려놓고있는 사실을 통해서도 미국의 강권과 독단, 이중기준이 얼마나 극도에 이르렀는가 하는것을 잘 알수 있다.

미국은 세계최악의 인권말살국으로서만이 아니라 썩고 병든 황금만능의 사회인것으로 하여 국제적야유와 항의의 대상으로 되고있다.

새해에 들어서면서 어느 한 신문에 《웃음거리가 된 모리따니주재 미국대사사진》이라는 기사가 실려 그 나라 사람들의 조소거리가 되였다. 사진에서는 미국대사가 그 나라 수도의 빈곤지역에 위치한 한 대중식당에 들어가 땅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구운고기를 먹고있는것을 형상하였다. 물론 대사는 이러한 행동으로써 미국이 빈곤한 사람들을 존중하고있다는것을 보여주어 미국을 선한 나라로 보이게 하려고 하였을것이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로 되였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수리아, 소말리아에서 인간살륙행위를 일삼고있는 악의 제국 미국을 야유조소하는 계기로 되고말았다. 즉 사람들은 미국대사가 먹고있는것이 짐승고기가 아니라 사람고기이며 미국이 존재하는 한 그리고 미국의 강권과 전횡을 저지시키지 못하는 한 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미국의 먹이감으로 될수 있다는것을 암시하였던것이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세계가 미국을 얼마나 증오하고있는가 하는것을 잘 알수 있다. 결국 모리따니주재 미국대사는 미국의 영상을 개선하려다가 오히려 망신만 당하였다.

일반적으로 대사라고 하면 외교관계를 맺고있는 다른 나라에 가있으면서 정부를 대표하여 자기 나라의 대외정책을 집행하는 가장 높은 급의 외교대표이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그가 누구이든지 돈만 있으면 대사의 자리도 마음대로 차지할수 있다. 하긴 돈이면 늪가의 오리도 대통령이 될수 있다는 말이 나도는 미국에서 선거깜빠니야시 기증금을 많이 바친 인물들이 대사로 임명되는것쯤은 례상사로 되고있지만 지금처럼 아무런 외교경험과 파악도 없는 인물들이 등용되는것으로 하여 사회적물의가 일어나고있다.

단적실례로 오바마가 색정영화제작자이며 연출가인 한 인물을 마쟈르대사로 임명한것도 정계내에서 강한 반발을 자아내고있다. 이에 대해 《미국의 소리》방송은 민주당에 적어서 50만US$를 기증하는 사람들이 단번에 대사로 임명되여 경험있는 대사후보들의 앞길을 가로막고있다고 까밝혔다.

최근 공화당내부에서 터지고있는 추문사건으로 하여 미국정계가 끓고있다.

얼마전 미국회 하원 공화당소속 의원들중 3인자로 되고있는 한 의원이 인종주의단체인 3K단의 리념에 동조한 인물이라는것이 밝혀져 미국회에서 론의의 대상으로 되였다. 민주당은 공화당고위인물이 범죄적인 단체와 련결되여있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였다. 미국의 인권단체들도 그가 사임할것을 요구하였다. 한편 공화당소속의 한 국회의원이 탈세행위로 의원직에서 사퇴하는 사건도 발생하였다.

분석가들은 미공화당내에서 발생하고있는 여러가지 추문사건들이 멸망에로 줄달음치고있는 미국의 운명을 예고해주고있다고 평하였다.

세계 제1위의 감옥대국, 세계최악의 인권말살국이며 황금만능의 사회인 미국이 멸망하는것은 필연이다.

본사기자 신 경 섭

미국은 북남관계개선에 찬물을 끼얹지 말라

새해벽두부터 미국이 우리에 대한 악랄한 도발책동에 매여달리고있다. 지난 2일 미국대통령 오바마가 우리에게 《추가제재》를 가할데 대한 행정명령이라는것을 발표하였다. 그 리유는 우리 나라가 미국의 영화제작보급사인 《쏘니 픽쳐스》에 대한 싸이버공격을 단행하였다는것이다.

미국집권자가 우리와 하등의 련관이 없는 사건을 코에 걸고 대조선적대행위를 또다시 감행한것은 정상사고를 벗어난 극히 이례적인 처사로서 무심히 스쳐보낼 일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에 대한 적대감이 뼈속까지 절은 미국정객들만이 꾸며낼수 있는 또 하나의 정치광대극이며 분별없는 망동이다.

《쏘니 픽쳐스》로 말하면 지난해 우리의 최고존엄을 헐뜯고 테로를 부추기는 불순한 영화를 만들어 방영하려다가 영문모르게 해킹당한 미국의 최대영화제작보급사이다. 우리는 이미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무턱대고 《북소행》이라고 터무니없는 여론을 내돌리며 유치하게 놀아대는 미국에 공동조사를 진행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누구든 다른 사람에게 범죄혐의를 씌우려면 증거부터 명백히 내놓아야 한다.

사건의 진상을 정확히 밝히자는 우리의 제안은 정정당당한것으로서 미국에도 해될것은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미국은 우리의 제의를 무시해버리고 종당에는 《추가제재》놀음을 벌리는것으로 정초부터 조미대결의 막을 올렸다.

미국에 묻건대 우리가 싸이버공격의 막후조종자라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라도 있는가. 이에 대해서는 피해당사자인 《쏘니 픽쳐스》의 최고경영자조차 입을 다물고있다.

오히려 미국의 싸이버전문가들속에서는 영화제작보급사에 대한 전대미문의 해킹사건이 내부소행이거나 다른 나라들과 련계되여있을수 있다는 설이 기정사실화되여가고있다. 미국의 한 대조선정보전문가는 북조선의 해킹기술이 《쏘니 픽쳐스》콤퓨터망을 틀고들어갈 수준이지만 미련방수사국이 《북조선소행》이라고 내놓은 증거들은 매우 억지스럽다고 주장하였다. 우리가 해킹사건과 아무런 관계도 없다는것은 더 론할 여지가 없다.

하다면 왜 미국이 명백한 증거도 없이 우리에게 한사코 싸이버테로딱지를 붙이며 소동을 피우는것인가. 왜 하필이면 많은 날들가운데서 새해정초부터 별로 효과도 없는 《추가제재》몽둥이를 휘두르는가.

이에 대해 세계의 많은 언론들이 응당한 의문을 품고있다.

격분스러운것은 새해에 북과 남사이에 대화분위기가 높아가는 때에 미국이 소동을 일으키고있다는것이다. 대조선경제제재를 통하여 완화의 기미를 보이고있는 북남관계에 제동을 걸고 대화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으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외신들은 주장하고있다.

프랑스 AFP통신은 미국의 《추가제재》가 조미관계, 북남관계에 부정적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측하면서 남조선이 앞으로 미국의 눈치를 볼것은 명백하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이번 조치는 북남화해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보아야 할것이라고 보도하였다.

도이췰란드신문 《빌트 짜이퉁》은 《쏘니 픽쳐스》해킹사건과 관련하여 아직 명백한 결과가 없고 조선이 새해에 평화의 신호를 보내기 시작하였지만 미국은 또다시 대조선경제제재를 강화하고있다고 전하였다.

로씨야신문 《꼼쏘몰스까야 쁘라우다》는 미국의 처사는 조선반도의 화해를 바라지 않기때문이다, 북남쌍방사이에 긴장한 관계가 유지될 때만이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자기의 영향력을 계속 고수할수 있다고 하면서 조선반도가 랭전체계에서 벗어나자면 북남관계를 개선하는것이 선차적이라고 전하였다.

일리가 있는 평가라고 할수 있다.

사실 북남관계개선을 가로막는 미국의 비렬한 분렬리간책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력대로 미국은 조선반도정세가 완화의 조짐을 보일 때마다 불집을 일으켜 의도적으로 대결과 살벌한 전쟁분위기를 고취하여왔다. 지난 시기 북남사이에 두차례의 수뇌자상봉이 진행되고 력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 채택되였을 때에 그에 수표한 남조선집권자들에게 모욕적인 언사까지 써가며 북남관계에서 속도를 조절하고 저들의 리해관계를 지켜야 한다고 강요한것이 다름아닌 미국이다.

미국은 그에 그치지 않고 친미졸개들을 내세워 북남선언들을 모조리 짓밟고 그 리행을 방해하였으며 북남관계를 대결에로 되돌아가게 하였다.

올해에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미국은 북남관계개선과 조선반도의 평화적환경을 위해 내놓은 우리의 중대제안들이 내외의 관심과 지지를 불러일으키자 덴겁하여 현실성이 없고 실현불가능한것이라느니, 과도적인 비용지불로 대응해서는 안된다느니 뭐니 하며 심사가 뒤틀린 소리를 늘어놓고있다. 이것이 동족사이에 쐐기를 박고 통일을 방해하며 우리의 대화노력에 제동을 걸어 저들의 침략적목적을 달성해보려는 흉심으로부터 출발한것이라는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미국언론들은 《북남조선사이의 지나친 화해와 협력이 미국의 리해관계에 저촉된다는것이 이미 증명되였다.》, 《남조선이 혼자서 북조선과 대화한다면 미국이 그냥 놔두겠는가.》 등으로 보도하면서 북남관계에 로골적으로 간섭하는 미국의 전횡과 간섭에 우려를 표시하고있다.

북남관계개선과 긴장완화의 흐름을 가로막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긴장을 격화시켜보려는것은 심술궂은 미국훼방군들의 체질화된 악습이다. 우리 민족을 둘로 갈라놓고 분렬의 막뒤에서 조선반도를 영원히 가로타고앉아 세계를 제패하려는 미국의 흉악한 속심은 또다시 만천하에 낱낱이 드러났다.

오늘 지구상에 수많은 민족들이 생존하고있지만 세기를 이어오며 민족분렬의 비극을 겪고있는것은 조선민족뿐이다.

민족분렬의 가장 큰 피해자는 우리 민족자신이다.

동족끼리 서로 적대시하고 대결하면 손해볼것은 우리 민족밖에 없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외세의 장단에 춤을 추면서 동족을 해칠것이 아니라 북남쌍방이 힘을 합쳐 미국의 간섭책동에 맞서나가야 한다. 이렇게 할 때만이 이 땅우에 존엄높고 부흥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울수 있다.

민족분렬의 기본장본인인 미국은 대세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함부로 날뛰지 말아야 한다. 오늘의 현실은 미국이 시대착오적이며 무분별한 민족분렬리간책동에 매여달릴수록 그들에게 차례질것은 보복과 징벌뿐이라는것을 보여준다.

미당국자들은 이제라도 덮어놓고 우리를 적대시하는 타성에서 벗어나 대담하게 정책전환을 하여야 한다.

전 영 희

ㄱ-510076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 집 위 원 회